# 李安訥 漢詩 研究

## 李 鍾 默

1. 더리 말

(1) 李安訥 漢詩의 연원과 作法

2. 李安訥의 전쟁 체험

- (2) 紀實의 시세계
- 3. 李安訥의 漢詩 作法과 紀實의 시세계 4. 결 론

#### 1. 머 리 말

조선시대의 文運은 中宗 때 큰 성과를 이루었고, 壬辰倭亂을 전후한 시기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穆陵盛世라는 명칭에 걸맞게 수많은 문인들이 제각기 목소리를 내며 漢詩壇의 牛耳를 잡으려는 치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후대의 비평가들이 남긴 기록을 검토할 때李達, 崔慶昌, 白光勲 등을 이어 權轉과 李安訥, 李植 등이 최고의 시인으로 칭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본고는 이 중 李安訥의 한시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3) 李安訥이이 시기 漢詩史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20세라는 젊은 나이에 壬辰倭亂을 직접 체험하였고, 그 이후에도 작고 큰 북쪽 오랑캐의 침입을 목도하였으며 丙子胡亂의 와중에 최후를 마친다는 李安訥의 생애와 이를 시로 형상화한 것이 주목을 끈다. 李安訥은 임진왜란이 터지자 함경도로 피난가는 절박한 기간에 일기를 적듯이 비극적인 전쟁의 체험을 시로 적어두고 있으며, 이후 외직에 전전하는 여로에서 倭亂의 참상을 되돌아보거나 內亂과 胡亂을 체험하고 이를

<sup>(1) &</sup>quot;我朝詩, 至中廟朝大成. (中略) 我朝詩, 至宣廟朝大備."(『惺叟詩話』, 317년) 이하 詩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詩話叢林本을 바탕으로 하였다.

<sup>(2) 『</sup>西浦漫筆』(景仁文化社 영인본), 619년.

<sup>(3)</sup> 李安訥에 대한 기존의 연구 업적으로는 權賢珠,「東岳 李安訥의 시연구」(부산여대 석사학위논문, 1982);李丙畴,「李安訥의 詩文學」(『韓國의 漢文學』, 민음사, 1991);鄭珉,「石洲 權舉과 東岳 李安訥의 대비적 고찰」(『韓國學論集』,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6) 등을 들 수 있다.

적은 작품을 매우 많이 남기고 있는데, 이들이 높은 문학성을 담지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시기 시대 상황과 이의 형상화라는 측면을 고찰할 때 李安訥의 시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게 된다. (4)

이와 같은 의의를 가진 李安訥의 시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李安訥의 전쟁 체험과 이를 형상화한 작품을 살폈다. 이어 이러한 작품을 관류하고 있는 紀實의 시정신이 어디에서 배태된 것인지, 또 이 紀實의 시정신을 어떠한 창작방법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살핀다. 이를 통해 암묵적으로 동의되는, 조선 후기 한시의 특징적인 성향인 사실주의적 시작법의한 전범을 李安訥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李安訥의 전쟁 체험

東岳 李安訥은 1571년 漢陽에서 태어났다. 10세에 經史를 널리 읽고 詩詞를 익혔는데 이 시기 이미 詞意가 탁월하였고, 친구들과 酬唱한 것이 10여권이나 되어 縉紳間에 널리 읽혔다고 한다. 16세에 騷賦로 成均館試에 여러번 합격하고 宣祖에게 크게 칭상을 받았다. 18세에 進士初試에 합격하였으나 주위의 질시를 받자 擧業을 폐치하고 古文辭 제작에 힘을 쏟았으며, 당대 준재들과 널리 교유하던 중 倭亂을 만나게 된다. (5)

1592년 4월 14일 왜적이 부산포에 상륙을 하자 宣祖는 4월 30일 재벽에 한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른다. 李安訥도 이때 함경도로 피탄을 떠났다가, 利城에서 養母의 병환으로 母婦人을 모시고 있던 仲兄 일행과 이산하게 된다. 이때의 상황은 〈母別子〉에 잘 형상화되어 있다.

母別子 어머니가 아들을 이별하니

母撫子背悲無語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슬픔에 말이 없다.

予別母 아들이 어머니를 이별하니

子拜母前淚如雨 아들은 어머니 앞에 절함에 눈물이 비오듯 한다.

子兮少也養于人 아들은 어려서 남에게 길러져

<sup>(4)</sup> 壬辰倭亂과 관련하여 李安訥의 한시를 다룬 업적으로는 조동일, 「許筠 세대의 임진왜란 체험과 한시의 변모」(『壬辰倭亂과 韓國文學』, 민음사, 1992)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四月十五日〉만 다루고 있어 전면적인 고찰이 되지 못하고 있다.

<sup>(5)</sup> 李安訥의 생애는 行狀과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謂他人母他人父 타인을 어미라 부르고 타인을 아비라 불렀다.

自賊之亂遭飄蕩 왜란으로 떠도는 신세되고부터는

何幸行藏偕侍怙 어찌하면 늘 부모와 할까 걱정하였지.

左提右挈東之北 왼손으로 끌고 오른손으로 잡고서 동으로 북으로

我與仲兄同雁序 나는 중형과 함께 줄지은 기러기처럼 함께 다녔지.

豈知環環鞠我母 우리 어머니를 형님 홀로 봉양하게 될 줄 어찌 알았으랴?

一臥三旬嬰二竪 삼칠일 지난 갓난아이에 버덕머리아이는 둘이라.

伏枕不復登長途 자리에 엎드린 채 다시 먼 길로 나서지 못하여

擬載扁舟竄孤嶼 조각배 타고 외로운 섬에 숨으려 하네.

海事吾兄誠不習 바닷일에 우리 형님 실로 익숙치 못하건만

便奉晨昏別我去 문득 어머님 모시고 나를 떠나가는구나.

別我去 將何之 나를 떠나 장차 어디로 가시나요?

絕迹深入窮荒土 사람을 피하여 궁벽한 땅으로 깊이 들어가네.

南來賊騎亂如麻 남에서 온 도적은 사람을 마구 죽이니

此別誰能知死所 이 이별 후에 어디서 죽을지를 누가 알리요?

水浮陸走如參辰 물길로 물길로 흩어져 아득히 떨어지리니

影絕魂消音聞阻 '그림가 끊어지고 혼이 아득해 소식이 끊기리라.

天長地闊風塵暗 하늘다 땅은 멀고 넓은데 풍진은 어둡다.

死當不相見 죽으면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生亦難相聚 살아난들 다시 모이기 또한 어려우리.

萬理同來忽分途 - 만리긴 함께 왔다 홀연 길을 달리 하게 되니

在於他人亦惻楚 남이 봐도 또한 서글퍼지리라.

何況天涯子母別 게다가 하늘끝에서 아들이 어머니와 이별하니

割慈忍愛情如許 자애트운 어머님의 정이 어떠하겠나?

臨岐嗚咽心鼻酸 갈림길에서 오얼하니 마음과 코 끝이 찡하여

欲道平安不敢吐 평안하시라 말하려 해도 어찌 감히 말하리요?

母別子 子別母 어머니는 아들과 헤어지고 아들은 어머니와 헤어지니

別意凄凄難重敍 이별의 뜻 서글퍼 다시 말하기 어렵다.

人間從古重生男 인간제상 옛부터 아들 낳기를 중히 여겼건만

今日誰知別離苦 오늘날 이별의 아픔 누가 알리요?

君不見 그대 보지 못하였나?

利城城東無乾土 이성은 성 동쪽에 마른 땅 없으리니,

母子飄零泣別處 모자가 흩어져 울며 이별하는 곳이기에.

〈母別子〉(「續集」, 2a-3a) [6]

<sup>(6)</sup> 이하 李安訥의 한시는 韓國文集叢刊 78 소재 『東岳集』에서 인용한다. 本集은 국립중앙도서관 장본을, 續集은 규장각 소장본을 底本으로 삼고 있다. 특히 李安訥이 젊은 시절 겪었던 임진왜란 체험이 續集에 실려 있어 續集의 자료적 가치가 높다.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李安訥은 4월에 바로 仲兄과 함께 養母와 친부모를 모시고 피란을 떠난다. 함경도 利原에 이르렀을 때 養母의 병이 위독해져 더 이상 북으로 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7월 7일 仲兄은 兩親을 모시고 먼저 뱃길로 端川으로 갔지만, 李安訥은 養母와 함께 남아 있을 수 밖에 없 었고, 이 때문에 그의 親母와 헤어지게 된다. 이 작품은 이러한 배경에서 제작되었다.

李安訥은 10세때 李沁의 後嗣로 들어가게 되어 친부모와 헤어져 살았는데, 다시 전쟁을 만나 북녘 멀리 피란길에서 친모와 헤어지게 된 처지에서이 작품을 지은지라, 굳이 감정을 절제하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절제되지 않은 嗚咽이이 시를 더욱 정채롭게 한 것이라 하겠다. 넋두리 하듯이 말을 풀어나가느라 자연스럽게 古詩라는 시형을 차용하였고, 비록 一韻到底로 하였지만 韻을 까다롭게 지키려고 애쓰지 않았다. 君不見으로 시상을 환기시켜 전반부에서 이산의 슬픔을 서정적으로 종결하는 마지막 대목에서는, 利城의 城東에 母子의 이별의 눈물로 인해 마른 땅이 없다 하여 다분히 과장어린 표현을 하였지만, 명사구로 시상을 종결하여 자신의 슬픔을 무한정 발산하지 않고 회화적 심상으로 종결하여 강한 여운을 남긴 것이 더욱 감동의 강도를 강하게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양식의 시는 古詩 歌의 전통에 있다. 歌는 시적 자아가 시인 자신이 되며, 자신의 감정을 긴 장편으로 토로하는 양식이다. 전쟁을 맞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작품에서 李安訥은 이처럼 歌의 전통을 빌 어 억제하지 못할 슬픔을 노래하였다. 이 작품에서 "母別子" 등 반복적 표 현을 많이 쓴 것도 歌의 전통에 충실한 것이면서 목메어 어머니를 부르는 강한 탄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울부짖듯 어머니와 헤어져야 할 처참한 상 황을 노래하고 있다.

다음에 보이는 〈當死歎〉은 자신의 각정을 주관적으로 토로한 歎이라는 시체의 작품이다. 歎은 歌에 비해 더욱 강한 정서의 표출 양식이다.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인지라 자신의 비감이 강하게 토로되고 있다.

當死死寧早 죽어야 할 바에야 차라리 빨기 죽기나 하지

我死何其遲 나의 죽음은 어찌 이리 더디냐?

一日在人世 하루 인간세상에 있으면

一日百慮滋 하루 백가지 근심 몰려드네.

人世旣如此 인간세상 이미 이와 같으니

此生生奚爲 이 인생 산들 무엇 하리?

百慮只爲死 백 가지 근심 단지 죽음 때문인데

一死寧復知 한 번 죽으면 어찌 이를 알리요?

倘令昨日死 어제 죽었더라면

豈有今夕悲 어찌 오늘 저녁의 슬픔이 있었으랴?

今夕海寇至 오늘 저녁 왜구가 이르러

鐵馬左右馳 철마는 좌우로 치달으며,

殺人若草木 사람을 풀베듯 죽여

所過恣芟夷 지나는 곳마다 멋대로 베고 자르네.

原?(7)變朱殷 언덕은 핏빛으로 변했고

黔蒼無一遺 백성은 하나도 살아 남은 이 없구나.

俯仰天地大 넓은 천지를 굽어보고 우러러봐도

茫茫無所之 아득하여 갈 데가 없도다.

簑身荊棘中 가시덤풀에 몸을 숨기니

身上無完肌 몸에는 온전한 살갗이 없도다.

不飮不知渴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마른 줄 모르고

不食不覺飢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못 느낀다.

滿眼旌旗紅 눈에는 붉은 짓발 가득하고

滿耳言侏離 귀에는 오랑캐 소리 가득하네.

不死亦何顏 국지 않은들 또한 무슨 낮이 있으랴?

死無復生期 죽게 되어 다시 살아날 기약 없도다.

早識終不免 일찍 면하지 못할 줄 알았더면

甘作故山屍 달게 고향산에 시신을 묻었을텐데.

誰料萬里外 누가 알았으라? 만리 밖에서

零落至於斯 영락하여 이렇게 될 줄을.

我身旣而已 내 신세 이미 끝났지만

我母將依誰 ້ 우리 어머니 장차 누구를 의지하랴?

平生濟世策 평소 세상을 구제할 계책은

鬱沒不得施 파묻혀 베풀 길 없게 되었네.

一寸憂君心 한 조각 임금을 근심하는 마음은

斷斷猶未移 변합없이 오히리 바뀌지 않는다.

社稷莾丘墟 사직은 구렁에 떨어졌으니

匡復當何時 어느 때 다시 회복하리요?

吞聲向白日 울음을 삼키고 대낮에

<sup>(7)</sup> 원문에 글자가 빠져 있다. '언덕' 정도의 뜻을 가질 글자가 들어갈 자리로 보인다.

所以歎咨咨 이 때문에 탄식하노라.

容咨告借死 탄식하며 어찌 죽음을 아깝게 여기라.

借死非男兒 죽음을 아낀다면 사나이가 아니리라.

〈當死歎〉(「續集」, 3a-b)

李安訥은 중형과 친모가 端川으로 떠나가는 비감한 상황에〈母別子〉를 썼는데, 불행히도 바로 다음날인 1592년 7월 8일 갑자기 이른 왜적을 만나게된다. 놀라 당황하다 겨우 피하여 며칠간 산 속에 죽은 듯이 숨어 있었다. 제목을 〈當死數〉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죽음보다 못한 삶의 상황에서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처절히 울부짖고 있다. 동일한 글자를 반복해서 쓰는 古詩의 관례를 따라 더욱더 강한 비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또 곳곳에의문형, 혹은 감탄형을 구사하여 歎이라는 詩體의 특성을 잘 활용하였다. 왜적이 지나가는 곳은 풀을 싹 베어내듯 모조리 백성을 죽여 피비린내가 온통 풍기는 상황이지만 자신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처지기에, 살아난들 무슨 낮으로 사람을 보겠느냐라 한 대목에서는 젊은 李安訥의 피가 거꾸로 솟고 있음을 보게 한다. 피란을 다니다가 갑자기 만난 왜적 때문에 풀숲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 동안 목마름과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상황은 급박했건만 그 와중에도 忠君憂國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있음이 대견할 정도이다. 이러한 忠君의 의지는 愛民과 함께 그의 시세계를 관류하는 큰 주제가 된다.

다음 해인 1593년 李安訥은 다시 관서지방으로 피란을 계속한다. 이때 明의 원병이 1월에 平壤을 수복하고 북녘의 도적이 남으로 모두 철수하게 된다. 李安訥은 왜적을 피해 산속에 며칠 숨어있다가 몰래 端川으로 간다. 그러나 그곳에서 친부모와 형을 만나지는 못하였다. 이후 李安訥은 양모를 모시고 걸식을 하며 다니는데, 다음 작품은 이 시기의 것이다.

朝堀野田蔬 아침에 들녘에서 채소를 캐고

夕樵澤中藪 저녁에는 못에서 물풀을 캔다.

歸來漑瓦釜 돌아와 흙솥에 물을 붓고서

乞火北里婦 북쪽 마을 부인네에게 불을 빌린다.

根葉雜芳辛 뿌리와 잎, 꽃에 섞여 맛이 쓴데도

煮之奉老母 이를 끓여 노모를 봉양한다.

母云味當肉 노모는 말하기를, "고기맛이니

誠可悅我口 내 입에 맞도다."하시네.

豊是菜之美 어찌 이것이 채소의 닷이리요?

爲憐母飢久 오래 굶주린 노모가 가엽다.

却隱獻芹人 문득 옛날에 미나리 바친 사람 생각이 나네,

玉輦今安否 임금님은 지금 안부가 어떤지.

〈食菜〉(「續集」, 3b-4a)

〈食菜〉라고 제목한 작품이다. "갑자기 이른 적을 만나 겨우 몸을 빼 달아나다가 행장을 중도에 던져버렸고 보따리는 급박해서 가져오지 못해 밥을 굶은지 근 열흘이어서, 다만 들판의 채소로 배를 채웠다(値賊猝至, 脫身奔竄, 行裝實於中道, 養棄迫不及將, 絕食餘十日, 但以野蔬充飢)."라고 한 序에서 李安訥의 피란지의 궁핍상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채소를 뜯어다 국을 끓이니뿌리와 잎, 꽃이 섞여 국이 쓴데도 노모는 오래 굶어 오히려 고기맛을 느낀다고 했으니 李安訥의 마음에 이 시기의 곤궁함이 잊혀질리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 강한 현장감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채소를 끓여 모친을 봉양하면서 여기서 다시 獻芹의 고사를 연상하고 "이를 다시 忠君의 정성으로 연결시켰다. 자신의 고통을 개인적인 비감에 국한시키지 않고 똑같은 고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임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 국한 상황에서도 잃지 않고 있는 忠君의 의지를 볼 수 있다.

李安訥은 친부모와 헤어진 후, 위의 시에서 보았듯이 걸식을 해가며 다니다가 8월에 洪原으로 돌아와 산촌에 머무른다. 이 시기 李安訥은〈憶諸兄〉・〈憶伯兄〉을 지어 이산의 슬픔을 노래하고,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九月九日〉 4수를 지어 괴란지의 애상을 토로하였다. 또〈海之天〉・〈冬至〉등도 이시기의 유사한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9) 이들 작품들은 앞에서 본 예들과함께 전란의 와중에서 비극적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李安訥의 시가 그 출발에서부터 憂國 愛民의 주제를 현실주의적 기법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壬辰倭亂이라는 비극적 전쟁은 끝이 났지만, 李安訥은 젊은 날의 처절한 체험으로 인해 지난날의 전쟁과 관련되는 곳에 이를 때마다 그 날의 참상을

<sup>(8)</sup> 獻芹은『列子』「楊朱」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미나리를 먹어보니 제입에 맛 있다고 여겨 높은 사람에게 바쳤는데, 남들에게는 맛이 매우 썼다는 故事가보인다.

<sup>(9)</sup> 이들은 모두 「續集」에 들어 있다.

되돌아보거나, 참상의 원인에 대해 위정자들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고 있다.

去歲倭奴亂東國 지난 해 왜적이 우리나라를 어지럽힐 때

維湖之南獨安宅 오직 호남만이 편안하였다네.

閑山自是賊咽喉 한산섬에서 도적이 울부짖게 되었으니

龜船將軍雄所扼 거북선의 장군이 크게 분발하였기 때문이라.

豺狼相噬易爪牙 승냥이가 물며 발톱과 이빨을 갈아댔지만

屈指廟堂無長策 조정에서는 헤아려도 좋은 꾀가 없었지.

扶桑一炬趂東風 동해에 횃불 하나 동풍을 좇으니

夜半烟焰燋空碧 야반에 화염은 푸른 하늘을 태웠다.

熊羆十萬化爲魚 곰같은 십만대군 고기밥이 되었으니

海水群飛波盡赤 바닷물이 출렁이자 파도는 모두 붉어졌다.

唇缺齒寒勢固然 순망치한이라 하였으니 형세가 그러한 것,

死者已矣吾安適 죽은 자는 끝이지만 나는 편안하도다.

〈七月二十六日作〉(「續集」, 22b-23a)

피란에서 돌아온 李安訥이 1599년 한양에 머물고 있을 때의 작품이다. 宦路에 오르지 못한 채 失意에 젖어 있으면서 자신의 집인 東國에서 詩會를 열어 詩酒의 風流를 즐기기도 하지만 벗들과 함께 현실에 대한 강개한 목소리를 높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李安訥이 1592년 7월의 閑山大捷을 떠올리고 그 영웅 李舜臣의 쾌거를 노래하였다. 영웅의 행적을 찬양하면서도 조정의 주축인 문신이 국난을 극복할 능력이 없었기에 이를 비꼬아 脣亡齒寒이라 한 말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를 숨기고 있다. 스승이었던 鄭碏, 지기였던 趙緯韓 등과 폭음을 하며 時事를 강개하던 李安訥의 모습을 이 작품에서 읽을 수 있다. 젊은 시절 체험한 전쟁으로 인해 李安訥은 在野의 처지에서 위정자의 실정을 질타했던 것인데, 이러한 태도는 이후 倭賊과 胡賊에 대한 조정의 무기력함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어 풍자가 李安訥한 신의 한 작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李安訥은 1599년 문신정시에서 二十韻 排律〈仁政殿〉으로 2등으로 급제하여 宦路에 올랐다. 承文院 副正字를 거쳐 1599년 8월에 함경북도 兵馬評事가 되어 피란지였던 洪原과 北靑, 利城에 다시 이르게 된다. 어린 시절 경험한 전쟁 체험은 그로 하여금 당대 현실을 직재하게 한시에 담아내게 하였고, 전쟁이 종식된 후 다시 宦路에서 찾게 된 전장은 지난날의 참상을 강개

한 목소리로 고발하게 하였다.

洪原會是我幷州 홍원은 나의 제 2 의 고향,

十口飄零寄一丘 열 식구 떠돌며 한 언덕에 몸을 부쳤지.

日下戰塵纏雁塞 첫살 아래 전쟁 먼지는 기러기 나는 변방을 에워싸고

草間啼血望龍湫 풀숲에 토한 핏자국은 용추를 바라보네.

飽經憂患身仍倦 우환을 많이 겪어 몸이 권태로운데,

早向功名計已休 일찌각치 공명의 계획이 이미 끝났구나.

千里重來八年事 천리철 다시 오니 팔년 만의 일이요,

海雲殘照逈生愁 바다 구름지는 햇살에 아득히 근심이 생겨난다.

〈洪原驛〉(「北塞錄」, 卷一 4b)

幷州는 제 2의 고향을 이르는 말이다. (10) 8년만에 洪原에 다시 오니 고향 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는 뜻인데, 지난 날의 처절했던 체험이 너무나 생생하다는 말을 이처럼 한 것이다. 頷聯에서는 전쟁의 흔적이 여전함을 말 하였다. 龍湫는 임금의 행재소가 있던 義州의 九龍淵이다. 上句의 雁塞는 下句의 고유명사 龍湫에 對를 맞추 것인데, 이로써 변방의 분위기를 시각화 하였다. 啼血이라 한 것은 곧 두견새 울음소리다. 杜甫의 〈杜鵑〉이라는 戀 君의 시가 유명하거니와, 여기서는 왜적의 공격으로 어쩌지 못하여 피눈물 만 흘리는 君臣의 모습을 투영하였다. 李好閔이〈龍灣行在聞下三道兵進攻漢 城賊〉의 "임금의 마음은 최잡하게 강물을 마주하고, 조정의 대책은 처량히도 저녁 햇살을 대하였네(天心錯莫江臨水, 廟算凄凉對夕暉)"나 宣祖의 "변방의 달 빛 아래 통곡하고, 압록간의 바람에 상심하노라(痛哭關山月,傷心鴨水風)"라 는 구절을 연상케 한다. 다만 이 구절은 戰歿 용사의 원망어린 눈길이 행재 소가 있던 자리를 향한다고 볼 수 있어 풍자의 날카로움도 엿볼 수 있다. 頸聯은 22세의 젊디젊은 李安訥이건만 전쟁으로 10년은 더 늙어버려 몸 가누 기가 여의치 않고, 또 벼슬이라고 받아보니 먼 변방의 처참한 과거만 떠올리 게 되었다는 뜻이다. 애늙은이가 되어 버린 李安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李安訥은 전쟁을 피하여 함경북도 도처를 헤메고 다녔기에 훗날 이르는 곳마다 지난 날의 감회로 비감에 젖을 수밖에 없었다. 전쟁 등의 비극적 상 황을 묘사하면서 강개한 독소리를 시에 담는 특징 때문에 후대의 평자들은

<sup>(10)</sup> 賈島〈渡桑乾詩〉"客台幷州已十霜,歸心日夜憶咸陽. 無端更渡桑乾水, 欲望 幷州是故鄉."에 나오는 말이다.

李安訥의 시가 燕나라의 비분강개한 노래를 닮았다고 하게 된 것이다. (11)

弱歲曾從此路行 젊은 시절 일찍이 이 길을 지나서

天涯徒步避蠻兵 하늘가에 도보로 오랑캐를 피했지.

煙塵漠漠迷寒日 자욱한 먼지가 아득하게 찬 해를 뒤덮고

風雨冥冥滿古城 비바람 어둑하여 옛성에 가득하다.

駟馬忽如題柱客 네 필 말을 모니 문득 기둥에 글 쓰던 나그네 같은데,

關門誰證棄繻生 관문에서 누가 부절을 버린 사람을 알아보리요?

逢人欲說當時事 만나는 사람에게 당시의 일을 말하려는데

閻井依然草樹平 마을에는 옛처럼 나무가 나즈막하다.

〈北靑府〉(「北塞錄」, 卷一 4b-5a)

北靑을 지나면서 쓴 작품이다. 왜적을 피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 관리가 되어 다시 지나가고 있다. 額聯에서는 전쟁 먼지로 인해 해조차 어둑하더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고 하였다. 頸聯의 題柱客은 司馬相如가 처음서쪽으로 떠날 때 昇仙橋를 지나면서 高車駟馬를 타지 않으면 이 다리를 다시 지나지 않겠다고 한『城都記』의 기사에서 나온 말이다. 棄繻生의 繻는 변방을 통행하는 증명서인데, 비단에 글을 써 찢은 다음 관문을 나설 때 이를 합쳐보고 통행시켰다고 한다. (12) 北靑 역시 제2의 고향 같은지라 이제관리가 되어 다시 찾으니 錦衣還鄉을 한 셈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 속에 기쁨이 아니라 自嘲의 빛이 역력하다. 尾聯의 上旬까지 강개한 情을 말한 다음 下旬에서 景의 묘사로 시상을 종결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긴 여운에 잠기게 한다.

이 작품은 앞에서 본〈洪源驛〉과 유사한 작법으로 되어 있다. 首聯에서는 산문적이고 평이한 구법으로 行路를 적고, 額聯에서는 전장이었던 곳의 경 물을 묘사하였다. 額聯의 스산한 경물 묘사 속에는 시인의 정서가 이입되 어 있다. 頸聯은 시인의 강개한 情을 말하고, 尾聯은 上旬에서 情을 총결한 다음, 이를 下旬에서 객관적 상관물로 대치하고 있는 점이 작품의 미감을

<sup>(11)&</sup>quot;評者謂:'東岳詩如幽燕少年,已負沈鬱之氣.'"(『小華詩評』113년, 안대회역주,『小華詩評』,국학자료원, 1993)

<sup>(12)</sup> 從軍이 18세에 博士弟子에 뽑혔는데 도보로 함곡관을 들어가 공부를 하려하였다. 관문의 관리가 軍編를 주자 從軍이 대장부는 서쪽으로 갈 때 그냥돌아오지 않는 법이라며 이를 버리고 갔다. 후에 從軍이 謁者가 되어 부절을 가지고 함곡관을 나서자 관문의 관리가 전날 編를 버린 사람이라 하였다. 『漢書』「從軍傳」에 보인다.

높이고 있다. 이 시기의 작품은 대체로 이와 같은 전형으로 되어 있다. 전쟁 당시 철저하리만큼 긴박한 상황을 재현한 작품들에 비해 유장한 맛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시간의 경과가 작품의 미감을 다르게 한 것이다.

李安訥은 1607년 8월 1일 다시 洪州牧使에 임명되었다가, 그 해 12월 21일 東萊府使로 자리를 옮겼다. 임진왜란이 종식된지 10년이 가까워졌건만 그날의 참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李安訥이 東萊에 들어섰을 때 눈에 보이는 경치는 황량함 그것이었다.

七載天南海賊屯 칠년 동안 남쪽에 왜구가 머둘더니 州居燒作一荒原 고을은 타버려 황량한 언덕이 되었다. 봄이 와도 어린 제비가 깃들 나무조차 없고 春來乳燕巢無樹 日暮殤魂哭幾村 해 지자 원혼들이 여러 마을에서 통곡을 하네. **衙吏僅存蠻語譟** 아전들 겨우 살아 남아 사투리를 지껄이고 관청의 밭들은 모두 묵어 버들잎에 뒤섞였네. 驛田都廢野柳渾 宋公忠烈新祠儼 宋象賢 장군의 충렬사만 늠름하게 새로 있어 **毅**魄惟應鎭國藩 굳센 혼백이 오직 변방을 지키고 있구나. 〈二月十五日入東萊府〉(「萊山錄」、卷八 5b)

나무도 타버리고 밭도 믁어 버린 황폐한 상황이, 宋象賢의 충렬을 기려 새로 세운 사당이 새롭게 솟아 있는 모습과 매우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다. 왜적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였던 開戰 초기에 오직 宋象賢만이 목숨을 걸고 항거하였는데, 이제 전쟁은 비록 종식되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 없어 죽은 宋象賢만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 한 말은 자신을 포함한 위정자를 향한 준엄한 질타를 대신한 것이라 하겠다.

蔓草蕭森古郭門 덩쿨들은 낡은 성문 앞에 빽빽한데

燼殘閭井但頹垣 타다 남은 마을에는 무너진 담장 뿐.

護嗣有鬼風烟暗 늘어선 사당에는 귀신이 있어 바람과 연기가 어둑하고

核市無人鳥雀喧 이틀마다 열리던 장터엔 사람 없어 새들만 요란하다.

城底廢壕堆白骨 성 밑의 무너진 참호에는 백골이 쌓여 있고

雨中寒燥照黃昏 비 속에 찬 인불은 으스름에 빛나네.

傷心忍問龍蛇歲 마음 아파 전쟁 나던 해를 차마 물으리?

潰老相看不堪言 살아남은 노인네를 보아도 감히 말 걸지 못하겠네.

〈題東軒壁上〉(「萊山錄」, 卷八 5b-6a)

東軒에 쓴 작품은 더욱 처절하다. 폐허와 시신만이 도성을 뒤덮은 상황이

라 위로조차 할 수 없는 백성들의 참혹상에 李安訥은 입을 다들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東來에 들어서 공무를 보던 4월 15일 동네 떠나갈 듯 울어대는 곡소리에 李安訥은 경악하여 아전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 이것이 유명한 〈四月十五日〉의 도입부이다.

四月十五日 4월 15일

平明家家哭 새벽 집집마다 곡을 하네.

天地變蕭瑟 천지가 온통 쓸쓸함으로 변하고

凄風振林木 스산한 바람이 나무를 뒤흔든다.

驚怪問老吏 놀라고 기괴하여 늙은 아전에게 물었지.

**哭聲何慘怛** "통곡 소리 어찌 저리 참혹한가?"

壬辰海賊至 "임진년 왜구가 이르러,

時日城陷沒 이때 성안이 함몰되었소.

惟時宋使君 다만 이때 송사또만 있어서

堅壁守忠節 굳게 충절을 지키니,

闔境驅入城 경내의 사람들이 성안으로 몰려들어

同時化爲血 동시에 피바다로 변했다오.

投身積屍底 몸을 바쳐 주검을 쌓았으니

千百遺一二 천명 중에 한두명단 살아났지요.

所以逢是日 이 때문에 이날에는

設奠哭其死 술잔을 바치고 죽은 자를 곡한다오.

父或哭其子 아버지가 자식 위해 곡하기도 하고

子或哭其父 자식이 아버지 위해 곡하기도 하고

祖或哭其孫 할아버지 손자를 위해 곡하기도 하고

孫或哭其祖 손자가 할아비를 위해 곡하기도 하고

亦有母哭女 또 어미는 딸 때문에 곡을 하고

亦有女哭母 또 딸은 어미 때문에 곡을 하고

亦有婦哭夫 또 아낙네는 남편 때문에 곡을 하고

亦有夫哭婦 또 남편은 아내 때문에 곡을 하고

兄弟與姉姉 형제와 자매까지

有生皆哭之 산 자는 모두 그를 위해 곡을 한다오."

整額聽未終 찡그린 채 차마 다 듣지 못하는데

涕泗忽交頤 눈물이 문득 턱까지 가득하네.

更乃前致詞 아전이 앞에 나와 다시 말하기를,

有哭獨未悲 "곡할 이 있는 것은 그래도 슬프지 않지요.

幾多白刃下 얼마나 많은데요, 퍼런 칼날 아래

擧族無哭者 온 가족 다 죽어 곡할 이 조차 없는이가."

〈四月十五日〉(「萊山錄」, 卷八 7a-8a)

이 작품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4월 15일 통곡 소리에 하늘과 땅조차슬픈 빛을 띠고 바람이 나무를 뒤흔드는 현상이 생긴 것을 먼저 1단에서 말하였다. 천지를 진동하는 통곡 소리와 이에 자연이 감용하여 스산한 경치로 변하는 것을 먼저 말한 것이 매우 극적이다. 2단은 시인의 물음과 아전이답한 말이다. 특히 아전의 대답은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처참한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전달되게 하였다. 宋象賢의 애국충절을 높이면서도 군민이宋象賢과 함께 나라를 위해 투신하였다고 하고 있어 영웅의 칭송으로 흐르지 않고 하천민의 참상의 고발로 이어질 수 있었다. 3단은 아전이 다시 말하는 부분이다. 2단의 거친 나열을 이어 곡할 이조차 없는 원흔들의 말을 아전이 대신하고 있어 섬뜩함을 더하고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전 일을 말하려 들지 않고, 관군이 통체로 전몰한 때를 말하기를 접내네(逢人不堪詢前事, 恐說官軍陣沒時)."(13)라 한 진술이 너무나 진실하게 들린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부모와 함께 피란길에서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념긴 李安訥이기에 훗날 東萊에 부임하였을 때 눈으로 본 백성의 비극상을 사실적 수법으로 잘 형상화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본 일련의 작품은 許筠의 〈老客婦怨〉과 함께 詩史라 할 만하다.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어 같은 날 제사를 올려야 하는 치지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관리의 입을 빌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쟁의 비극은 그 I차적인 책임이 군왕에게 있겠지만, 그 소재는 밝히지 않고 보고 들은 사실을 전한다는 의식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이러한 작품의 전형이다. 古詩의 行이라는 시체는 提起와 說理에 비중을 두어 寓意性과 諷刺性이 강하다. 자신의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고 아전의 입을 빌렸기에 현실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앞에서 본 〈母別子〉나〈當死歎〉은 歌의 체로 되어 있어 對自 的이고 自足的인 서정을 위주로 하여 주관적 감정의 토로에 적합하였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에 대해서는 억제치 못할 감정을 歌의 시체를 통해 거칠 것 없이 토로하지만, 남에게 들은 비극적 현실의 고발은 行이라는 시체를 빌어 이처럼 객관화된 언어로 말하는 것이 한시의 전통이기도 하다. [14]

<sup>(13)〈</sup>題機張縣絕句〉,「萊山錄卷」,卷八 13a.

<sup>(14)</sup> 歌와 行의 차이는 松浦友久, 『中國詩歌原論』(大修館書店, 1986)을 참조하였다.

왜적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던 東萊와 釜山 일대를 둘러본 李安訥이기에, 이를 형상화한 그의 시는 절로 애국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색채를 띠지 않 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이 시기 그의 작품은 비극의 고발에 머물지 않고 雪恨의 의지로 충만해 있다는 점도 그의 애국적 시세계를 더욱 가치있게 하 고 있다.

海中孤島賊咽喉 바닷속의 외로운 섬 왜구가 울부짖는 곳은

本是鷄林舊屬州 원태 계림의 속주였었지.

忍與通和天共戴 불천지 원수와 차마 화친할 수 있으라?

終須伐叛地全收 마침내 역도를 정벌하여 온 땅을 몰수해야 하티라.

擒吳覇越平生計 오와 월을 물리칠 일은 평생의 꿈이요,

擧罫燒裝百代讐 한양을 치고 왕릉을 태웠으니 백대의 원수라.

杖劍高城向東望 높은 성에서 검을 짚고 동쪽을 바라보니

世無人解讀春秋 세상에 춘추를 바로 읽은 이 없구나.

〈釜山城上望對馬島〉(「萊山錄卷」,卷八 10b-11a)

전쟁이 끝난지 10여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조선은 다시 일본과 화친을 하려 든다. 일본과의 화친이야 어쩔 수 없는 과제였다 하더라도 전쟁의 참 상을 몸소 체험한 李安訥에게는 이것이 용납될 수 없었다. 왜적에 대한 적 개심에서 남방으로 정벌하여 복속시키고 싶다고 하였고, 왜적이 임금의 陵 을 파헤친 극악무도한 일을 다시 상기시켰다. 斗峯 李芝完이 宣威使로 東萊 에 오게 되는데, 李安訥은 그와 시를 주고 받으며 화친의 불가함을 거듭 주 장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대마도가 원래 신라의 땅이므로 이를 정벌하는 것 이 마당한데도 조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음을 春秋의 대의에 어긋난다고 비 판하였다. 물론 당시에 일본을 정벌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은 자명하지 만, 그렇다고 구체적 보상 없이 통상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실제 일본은 이때 우리측 대표가 이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기상을 이유로 들어오지 않았다. 李安訥은 李芝完에게 병을 이유로 벼슬을 거두어 주도록 啓를 올릴 것을 부탁했는데, 이는 당시 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李安訥은 이외에도 수많은 작품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되돌 아본 작품을 남기고 있으며, 이들 작품에는 한결같이 憂國의 눈물을 읽을 수 있다.

전쟁의 참상은 倭亂으로 그치지 않았다. 1601년 누르하치가 受職을 구한

이래, 1602년 賊胡가 鍾城을 침입하였고, 1605년에는 忽刺溫野人이 潼關을 침입하였다. 李安訥은 이 시기 여러 차례 北關을 맡았기에 북쪽 오랑캐의 방비와 外患의 근절에 고심하였고, 이러한 애국적 의지를 시로 담아낸 것이 많다.

福州之地北邊胡 복주는 북쪽 오랑캐의 땅이라,

山寨屯兵護塞隅 산채에 병력을 주둔시켜 변방을 지킨다.

驕子異時多竊發 교만한 오랑캐 훗날 도발이 잦으리니

廟堂今日罄深謨 조정에서 오늘날 워대한 대책 세웠다.

夕烽未報樵兒返 저녁 봉수 피기 전에 나무하는 아이들 돌아오고

宵杯頻傳戍卒呼 새벽의 격탁소리 자주 전하자 수자리 군사들은 소리친다.

安得提兵出沙漠 어찌 하면 병사를 이끌고 사막으로 나가서

龍刀直斬上單于 용검으로 곧바로 오랑캐 장수를 벨 수 있으랴?

〈吾乙足堡作〉(「端州錄」、卷六、8b-9a)

李安訥은 1602년 12월 26일 端川郡守가 되어 다시 端川땅을 밟게 되었다. 李安訥에게 利城이나 洪原과 함께 이곳은 자신의 고향과 같기 때문에 스스로 이곳의 관리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倭亂의 비극을 말한 작품을 많이 남겼음은 앞에서 본 바 있거나와, 이 작품에서는 만주족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던 변방의 요새에 올라 북쪽 오랑캐의 잦은 도발에 대한 경계와 정벌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黃土嶺에 올라 白頭山을 가리키며 의로운 칼을 잡고서 적을 크게 물리치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표출한 것이 이 시기 시의 한 경향이다. (15)

응장한 품격 속에 적장을 베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것은 〈出塞曲〉類의 樂府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지만, 樂府詩의 의고성을 탈피하여 더욱 강렬한 愛國의 정신을 읽게 하고 있다. 李安訥은 이 시기 여러 편의 〈出塞曲〉을 짓는데 이들이 시어의 측면에서는 擬古性을 견지하고 있지만, 있음직한 상황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주제를 말하는 擬古詩의 전형을 탈피하고(16)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外敵에 대한 정벌의 의지를 현실적으로 말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의고성에 충실하였던 申欽이나 鄭斗卿의 시 경향

<sup>(15)</sup> 다음이 그러한 한 예이다. "西登黃土嶺, 北指白頭山. (中略) 直欲提孤劍, 長驅去不還."(〈黃土嶺作〉,「端州錄」, 卷六 9b)

<sup>(16)</sup> 擬古詩의 이러한 주제 표출 방식은 졸고,「成俔 擬古詩 研究」(『國文學研究』 93집, 1993)에 밝힌 바 있다.

과 구별되며, 이것이 바로 조선 후기 사실주의적 시풍의 선구로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李安訥의 이러한 의지와는 달리 조정은 외적의 침입에 대한 풍문만 들려도 먼저 달아날 궁리부터 하였다. 李安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렬한 풍자시를 제작하였다.

王業能安小島中 왕업이 작은 섬에서 편안할 수 있으라? 築城還與奉天同 쌓은 하늘을 받든 것과 도리어 같구나. 新堂不用拋梁祀 새로 지은 집은 상량식도 하지 않았으니 恐遺胡兒笑大東 오랑캐 우리나라 비웃을까 두렵네.

〈勤次五峯相公見寄之韻〉(「江都錄」,卷十二 28b)

1618년 建州의 夷奴兒哈赤이 遼東을 함락시키고 조선이 明과 연결하면 병력으로 치겠다고 공갈하니 이를 두려워 한 조정은 강화도로 옮겨 전쟁을 대비하자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강화부사로 있던 李安訥은 이를 두고 시를 적어 李好閔과 더불어 강한 냉소를 보였다. 임시방편으로 허둥대는 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작품이다. 전쟁의 참상을 목도한 李安訥이기에 강화도로도망하는 조정의 모습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 "王業"과 "小島"의 대비가날카로운 패러디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늘까지 높이 쌓아올린 성이오히려 위태해 보인다. 비록 성이 높기는 하나 上樑도 하지 않은 허둥댐에 대한 조소를 오랑캐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 더욱 날카로운 풍자로 읽히게 하고 있다.

이 시기 조선왕조는 외적의 침입뿐만 아니라 내부의 잦은 변란까지 겹치는 악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1624년 1월에 있었던 李括의 난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論功行賞에 불만을 품은 李括이 반란을 일으켜 平壤을 함락시키고 中和, 平山을 거쳐 개성으로 진격하니 임금은 公州로 피란길에 오르게 되고 李括은 漢陽으로 입성하였다. 李安訥은 1623년 12월 檟島에 머물고있던 毛文龍의 問安使로 관시로 나갔다가 그 이듬해 1월에 李括의 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다. 다음 작품은 李括의 난이 평정될 무렵인 2월 중순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關西直接海西程 관서는 바로 해서로 이어지는데 到處逢今問賊兵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도적떼를 묻는구나. 鳳郡半燒烟未散 봉산군은 반나마 타 연기도 흩어지지 않았는데

猪灘中斷骨相撑 저탄은 물이 끊겨 백골이 가득하네.

元戎若不留長策 원수가 좋은 계략 남기지 않았던들

小醜何能入上京 작은 추물 어찌 서울에 들어왔겠나.

見說翠華南幸日 들으니 임금의 행렬이 남으로 갔다 하니

諸公休詫樹功名 여러 공들 공명을 세우려 우쭐거리지 말게나.

〈平山途中記事〉(「關西續錄」卷十四, 5b-6a)

이 작품의 전반부에서 李安訥은 李括의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平山이 아직도 민심이 흉흉하고 戰火가 아직 꺼지지 않은데다 시신이 개울마다 즐비한 참상을 사실적으로 적어내었다. 이어 후반부에서는 官軍의 실책을 패러디의 수법으로 적고 있다. 대장군은 猪灘 전투에서 패배한 李元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군의 용렬한 작전을 "長策"이라 한 것이 풍자의 강도를 더욱 강하게 하고 있으며 조정의 여러 문신들이 말만 앞세우는 것을 尾聯에서 통렬하게 비꼬고 있다.

이러한 작품에서 李安訥이 당시의 위정자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李安訥은 죄를 입게 된다. 李括이 寧邊에서 난을 일으켰을 때 李安訥이 椵島에 있어 조정과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接件 使였던 金德誠이 李安訥이 해서 안될 말을 했다고 고하여 李安訥은 鏡城에 유배된다. 이 작품이 직접적인 빌미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李安訥의 태도가 화를 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1627년 1월 李安訥이 유배되어 있을 때, 金나라가 대대적으로 조선을 침략한 丁卯胡亂이 발발한다. 1월 12일 오랑캐가 3만의 기병으로 압록강을 전너 의주를 함락시키고 무인지경으로 남하하여 평양을 에워싸니 모든 사람들이 다 달아나고 궁중의 여자들은 다시 강화도로 피탄을 떠난다. 李安訥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丁卯春正月 정묘년 춘정월

胡雛渡鴨江 오랑캐새끼들 압록강을 건넜다.

先登義州陷 먼저 의주에 올라 함탁시키고

直到郭山降 곧바로 곽산에 이르러 항복을 받았다.

破竹空三路 파죽지세에 길은 텅비고

奔波動一邦 도망가는 물결이 온 나라에 일렁이네.

孤臣羽饋下 외로운 신하는 우령의 아래서

丁卯胡亂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적으면서 피란에 급급한 官民의 형태를 비판하고 있다. 首聯에서 산문적이면서 직설적으로 적어나간 것이 頷聯과 頸聯을 엄정한 역사가의 實錄으로 읽히게 한다. 냉철한 시각이 尾聯에 이르러서야 시인 개인의 비감으로 바뀌고 있다. 유배지에 있던 李安訥인지라 오히려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았지만, 끝내 외적에 대한 發憤을 감출 수 없어부질없이 칼을 뽑아들었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李安訥은 직면한 현실을 직제하게 시에 담아내는 한편,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憂國의 눈물과 함께 조정의 무능에 대한 칼날을 감추지 않고 있다.

鵬綠江頭斷夕烽 압독강 머리에 저녁 봉화 끊기고

烟塵晝暗牧丹峯 전쟁 연기에 낮인데도 모란봉이 어둡다.

定州軍潰誰思戰 정주의 군사들 궤멸하나 누가 싸울 생각하리요?

平壤城崩不待攻 평양성은 무너져 공격할 필요조차 없다네.

元帥本韜龍虎略 원수는 본디 뛰어난 재주 있지만

上都先避犬羊鋒 서울에서는 먼저 적의 칼을 피해버렸네.

最憐薩水雙名將 가련타, 살수의 이름난 두 명장이여,

坐斃高墉未折衝 높은 성가퀴에 앉아 있어 공을 세우지 않는구나.

〈正月二十五日癸巳〉(「東遷錄下」,卷十七 56b)

싸울 뜻을 먼저 잃어버려 평양성이 공격을 받지도 않고 절로 궤달되어버 렸음을 말한 다음, 무능한 장군과 도망갈 궁리만하는 조정을 신탈하게 비판 하고 있다. 앞에서 본 작품에서 무능한 장군을 "長策"으로 역설적으로 풍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무능한 장군을 "龍號略"으로 역설적으로 말하 여 풍자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 패장 南以興, 金浚 등을 다시 名將이라 하 여 풍자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있다.

그로부터 10여년 후인 1636년 丙子胡亂이 발발하였다. 李安訥은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강화부사와 함경도 순찰사, 충청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예조 판서 겸 예문관 제학과 형조판서 겸 흥문관 제학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임하였다. 그러나 이미 67세의 늙은 몸이라 주위에서 강화도로 먼저 피란할 것을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무를 주장하며 한양에 남아 있다가 임금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물론 곧 이어 성은 포위되어 패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젊은 시절 임진왜란의 참상을 낱낱이 적으며 강개한 목소리를 높이던 패기는 사라졌지만 許國의 의지는 오히려 비장한 결의로 나타나고 있다.

縱使孤城墮虜中 외로운 성이 오랑캐의 수중에 떨어진다 하여도

君臣無愧守精忠 군신이 정성과 충성을 지켰음은 부끄럽지 않으리라.

三韓自此名千古 삼한은 이로부터 명성이 천고에 날리리니

白日昭昭照碧空 흰 해 밝디밝게 푸른 하늘서 비추리라.

〈圍城中次洪相鶴谷韻口占示同寓諸君〉(「拾遺錄下」,卷二十三 75b-76a)

피폐한 국력으로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다고 李安訥과 그의 동료들은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항거하겠다는 의지는 생사를 초월하고 있으며, 죽음으로 충절을 지켜 역사에 바른 이름을 남기리라는 준엄함을 이 작품은 보이고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이르는 시기 수많은 전쟁의 와중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李安訥의 한시를 이상에서 살펴보았다. 李安訥의 이러한 전쟁 체험을 사실적으로 적어나간 수법은 조선 후기를 여는 리얼리즘 문학의 큰 봉우리로 평가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李安訥 한시의 현실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 시세계의 연원과 작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3. 李安訥의 漢詩 작법과 紀實의 시세계

## (1) 李安訥 漢詩의 연원과 作法

앞에서 본 전쟁 체험을 담아낸 李安訥의 시는 철저하리만큼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일부의 작품에서 낭만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지만 그의 시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현실주의적 창작방법이다. 李安訥의 시에서 읽을 수 있는 이러한 현실주의적 창작방법은 杜詩의 학습에서 나온 것이다. 李安訥은 유배 시절에 杜甫의 시를 만이천번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시를 검토해보면 이미 한시를 제작하기 시작한 20세전후한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杜詩의 영향이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① 平生讀破五車書 평생 다섯 수레의 책을 독파했지만 只作人間一腐儒 다만 세상에 한 쓸모없는 유생이 되었구나. 〈解金冠玉嘲縱飮不讀書〉(「續集」, 20b)

- ② 戎衣未定身多病 戰服을 아직 벗지 못했는데 몸에는 병이 많아, 獨望秦雲淚霑懸 홀로 서울의 구름을 바라보니 눈물이 줄줄 흐르네. 〈有懷王方洪先生〉(「續集」, 14b)
- ③ 平生憂國淚 평생 우국의 눈물을,千里空潸然 천리 먼 곳에서 부질없이 쏟노라.〈答具大受使君書〉(「續集」, 23b)
- ④ 金篦刮眼膜 금비녀로 안막을 벗겨주시니水月瑩如氷 물에 바친 달 얼음처럼 밝구나、〈寺巖〉(「北塞錄」,卷— 27a-b)
- ⑤ 歸心栗里宅 율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留賞習家池 머물러 습씨의 못을 구경하노라. 〈永與府使朴令公席上作〉(「端州錄」,卷六 34a)
- ⑥ 山人此時來 산사람 이때 이르러索我題新句 나에게 새로운 시를 찾는구나.〈贈敬全上人〉(「洪陽錄」, 卷七 6b)
- ⑦ 不有新簧與老梅 새로 심은 대나무와 늙은 매화나무 없다면 此生襟抱向誰開 이 생애 회포를 누구에게 말하리요? 〈用菊主簿梅竹絕句韻〉(「月城錄」,卷十一 21b)

①은 杜甫,〈柏學士茅屋〉 "富貴必從勤苦得, 男兒須讀五車書。" 와〈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 "讀書破萬卷, 下筆如有神。" , 그리고〈江漢〉 "江漢思歸客, 乾坤一腐儒。"를 합성하여 새로운 의경을 구축하였다. 전쟁의 와중에 떠돌아다닌 杜甫의 시에 ②에서 볼 수 있는 "戎衣" 나 "干戈未定", 혹은 "多病" 등의 시어가 자주 보인다. 下旬에서 韻字이면서 鍊字인 "懸"의 쓰임 역시 杜甫에서 매운 것인데〈得廣州張判官叔卿書使還以詩代意〉 "却寄雙愁眼, 相思 淚點懸。"이 그것이다. ③은 杜甫〈謁先主廟〉"向來憂國淚, 寂寞洒太巾。"에서 나온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⑤의 "習家池"는 杜詩에 "習池"와 함께 자주 나오는 典故이며,〈從驛次草堂復至東屯茅屋二首・一〉 "非尋戴安道,似向習家池。" 가 그 한 데이다. ⑦ 역시 杜甫의〈奉侍嚴大夫〉"身老時危思會面,一生襟抱向誰開。"에서 點化한 것이다. (17) 잦은 전란과 유랑 생활, 이에 따른이산의 비애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지를 말한 杜甫의 시가, 비슷한 체험을 겪은 李安訥에게 쉽게 그 전범으로 인식될 수 있었기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sup>(17)</sup> 陳師道의〈別劉郞〉"無酒與君別,有懷向誰開." 역시 이와 출처가 같다.

④의 上句는 杜甫의〈謁文公上方〉"金篦刮眼膜,價重百車渠."의 上句와 같다. 杜甫의 이 구절은 부처가 사람을 가르쳐 性에 이르게 함이 마치 좋은 의사가 금침으로 盲人의 眼膜을 벗겨 시계가 탁 트이도록 하는 것과 같다함이나 文公의 깨우침을 바란다는 뜻이다. 李安訥은 이를 수용하여 산사에 있던 스님에게 불도로 자신을 깨우쳐 달라는 뜻을 말하였다. 水月은 佛家의용어인 秋月寒水이다. 杜甫의 시 중에 스님에게 준 작품이 매우 많은데 李安訥 역시 사대부 못지 않게 많은 스님들과 교유하고 이들과 시를 주고 받은 것이 많다. 李安訥의 이러한 교유 상의 동질성 때문에 스님에게 준 시는 杜甫 詩를 모범으로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杜甫의〈大雲寺贊公房二首・二〉"湯休起我病,微笑索題詩."에서 點化한 ⑥도 이와 비슷하다.

이 이외에도 杜甫의 시에서 點化한 李安訥의 시구는 이루 적시하기 번거로을 정도로 많다. 특정 구절에 대한 點化와 더불어 시의 언어로 자주 구사되고 있는 불교용어 자체가 杜詩에 근거를 두고 있을 때가 많으며, 직접 杜詩에 차운한 것도 상당수에 달한다. "일찍 주렴계의 부를 읽었고, 늘 杜甫의시를 보았다(早讀濂翁賦, 相看杜老詩)."(18)라는 말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 후대의 시선집에 뽑혀 있는 작품도 杜詩의 풍이 강하게 감지되고 있어 李安訥 한시의 美學이 杜詩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六月龍灣積雨晴 6월의 용만에 장마비 그치니

平明獨上統軍亭 아침에 홀로 통군정에 올랐다.

茫茫大野浮天氣 망망한 큰 들판은 하늘의 기운에 떠있고

曲曲長江裂地形 굽이굽이 긴 강은 땅을 찢고 흐른다.

宇宙百年人似蝗 우주에 백년 인생 개미와 같은데

山河萬里國如萍 산하 만리에 도성은 부평초 같구나.

忽看白鶴西飛去 문득 흰 학이 서쪽으로 날아가는 것 보노라니

疑是遙東舊姓丁 요동땅 옛적의 정령위인가 하노라.

〈登統軍亭〉(「朝天錄」, 卷二 2b-3a)

이 작품은 李安訥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며 후대에 높은 칭찬을 받았다. (19)

<sup>(18)〈</sup>奉謝全羅道巡察使閔令公,以白紙十束・眞墨二十笏・生薑沈竹筍各一斗登物, 枉書遺遺, 因求用拙堂詩時, 丙寅十月二十五日申子.〉(「東遷錄下」, 卷十七 41b-42b)

<sup>(19) &</sup>quot;李學士東岳安訥,詩格渾厚濃麗,實罕世之才. 其宰秋城之日, 偕僕登俛仰亭

首聯은 杜甫의〈登高〉"萬里悲秋常作客,百年多病獨登臺."의 의경을 바탕으로 하면서 평이하지만 산문적인 강건한 맛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 이어 頷聯과 頸聯은 웅장한 미감을 자랑하고 있다. 頷聯에서는 杜甫〈登高〉의 "不盡長江滾滾來."의 기상을 엿볼 수 있거니와,〈登岳陽樓〉"乾坤日夜浮."의 호방함도 검하고 있다. 頸聯 역시 杜甫의〈衡州送李大夫赴廣州〉"日月籠中鳥,乾坤水上萍"에서 나온 것임도 쉽게 알 수 있거니와 그 미감에서도 杜詩와흡사한 데가 있다.〈重題〉의 "宇宙此生浮,江雨銘旌濕."과도 미감이 유사하다. 이처럼 이 작품은 杜詩에서 특정 구절을 點化하고 杜詩에서 읽을 수 있는 웅장한 미감을 자신의 개성적 표현으로 재창조하여 통군정에 오른 자신의 감회를 형상화하였다.

城上丹梯躡紫氛 성 위의 붉은 사다리 붉은 기운 밟으니

層闌(20)橫壓大江濱 층층 누대 멋대로 큰 강 줄기 누르고 있네.

天長地闊三韓合 하늘은 크고 땅은 넓은데 삼한 땅이 합쳐지고

嶽結川流二氣分 산은 솟고 강은 흘러 두 기세 나누어져 있구나.

客子登臨當落日 나그네 올라 보니 해가 지는데

英雄蹤迹摠浮雲 영웅의 종적은 모두 뜬 구름 같도다.

願傾薩水添春酒 살수를 기울여 봄술에 담아서

一酹隋家百萬軍 한번 수나라 백만 대군의 영혼을 위로하고 싶어라.

〈安州牧使崔令公瓘邀餞百祥樓二首・一〉(「朝天錄」, 卷二 3a-b)

〈統軍亭〉과 함께 웅장한 기세를 자랑하는 李安訥의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李安訥이 杜詩를 수용하여 이룩한 최고의 경지가 바로 이러한 작품으로 나타나고 있다. 높게 쌓아올린 百群樓인지라 이곳에 오르니 붉은 산기운을 밟는 듯한데, 아래로 청천강이 흘러가서 마치 이 百群樓가 이를 누르고 있는 듯 하다는 것으로 首聯을 시작하였다. 이어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땅 사이에

賦詩,僕敢唐突先手頷聯曰:'殘照欲沈平楚闊,太虛無闋衆峰高.'自以得雋語東岳次之曰:'西望川原何處盡,南來形勝此亭高.'下句隱然如老杜'海右此亭古.',語勢略似,可謂投以木果,報之瓊琚. 顧天使時以賓相以月沙幕下到龍灣登統軍亭有詩曰'六月龍灣積雨晴,平明獨上統軍亭. 茫茫大野浮天氣,滾滾長江裂地形. 宇宙百年人似蟻,山河萬里國如萍. 忽看白鶴西飛去,疑是遼陽舊姓丁.'此豈非大手也?"(『壺谷詩話』,404년);"丙寅東槎之役,鄭東溟人白衣從,而不善於酬唱,故一行皆輕之. 然,'統軍亭前江作池.'一律,可壓諸公累篇,第未知與東岳'六月龍灣積雨晴',優劣何如也."(『霽湖詩話』342년)

<sup>(20) &#</sup>x27;闌'은 '欄'의 잘못인 듯하다.

우리 조선의 영토가 뻗어 있고, 높은 산에서 뿜어나오는 산기운과 흘러내리는 강에서 솟아오르는 물기운이 어우리진 모습을 額聯에 담았다. 首聯과 함께 雄渾의 미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또 頸聯에서는 지는 해를 받으며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上句에 그린 다음 下句에서 살수대첩의 영웅 乙支文德의 쾌거를 돌아보았다. 尾聯은 이러한 웅장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청천강 강물을 자신의 술잔에 담아서 몰살되었던 수나라 백만대군의 영혼을 위로한다고 하였다. 이 작품에서 杜甫 詩와의 영향을 직접 적시하기는 어렵지만 작품 전체의 미감은 절로 杜詩와 흡사한 테가 있다. 오랜 學杜의 결과가 이러한 뛰어난 작품의 제작을 이끌어 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李安訥은 이와 함께 杜甫의 현실주의적 시세계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杜甫의 시는 詩史로 일컬어지는 일군의 작품에서 당대 현실을 직재하게 담아내고 있거니와 수많은 작품에서 당대인의 인명과 지명을 시어로 구사하여 현실주의적 시세계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배운 李安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쟁체험을 형상화하여 가히 詩史라 부를 만한 작품을 제작하게 된 것이다. 수많은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유랑하였던 杜甫의 시는,역시 倭亂과 胡亂이라는 전쟁을 직접 목도한 李安訥에게 작시의 전범이 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기에, 연속되는 전쟁 중에 제작된 李安訥의 시는 杜甫로부터 자연스럽게 憂國과 安民의 애국주의라는 주제를 수용하게 된 것으로보인다.

丁酉春正月 정유년 춘정월에

我行湖水東 나는 호수의 동쪽을 지난다.

和親漢使返 화친하러 간 사신은 돌아오자

警急羽書通 급함을 알리는 편지는 급하게 두달하네.

一口四五役 한 식구 중에 4~5인은 정용을 가고

十家八九空 열 집에 8~9호는 텅 비어 있구나.

少隆天寶末 杜甫가 천보 말년에도

猶見石壕翁 석호리를 보았다지.

〈發沔川,歷洪州禮山溫陽等地,還京城,時日本策使還,倭奴聲言,復大學來寇,中外震懼,賦役頻與,人民流產,所經州郡廬舍一空.〉(「續集」,17a-b)

이 작품은 尾聯에서 詩史로 일컬어지는 杜甫의 〈石壕吏〉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杜甫의 〈石壕吏〉는 史家가 역사를 적듯이 당대 현실을 생동감있게

교사한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杜甫의 시정신을 이어 받아 李安訥은 앞에서 본 대로 자신이 체험한 현실을 역사를 기록하듯이 사실적으로 묘사해낸 바 있거니와 이 작품 역시 이러한 계열의 것이라 하겠다.

이때 李安訥은 이 작품의 首聯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紀實을 위해 작품의 서두에 날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특이한 작법을 자주 구사하고 있다. 당대 현실을 史家의 눈으로 기술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詩作의 날짜를 首聯에 명기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시에서 잘 쓰이지 않던 干支가 시어로 자주 구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額聯과 頸聯에서 묘사한 당대 현실이 더욱 구체적으로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李安訥의 시에서 이와 같이 작품의 서두에 제작의 날짜를 적은 것이 매우 많아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3월 15일 계해일, 한낮에 경홍부를 출발하여 지공과 헤어졌다(三月十五日癸亥, 午發鏡府辭池公)."(21), "대명 천계 6년 봄, 달은 경인월이요 해는 병인년이라. 덕수이씨 늙은이가 성세를 만 났는데, 화산의 궁벽한 골짜기에서 거추장스런 신하 되었구나(大明天啓六年春, 月建庚寅歲丙寅. 德水老翁遭聖世, 花山窮谷作累臣)."(22), "임진년 여름에는 솔가하여 도적을 피했고, 己亥年 가을에는 왕명으로 갑옷을 입었노라(携家避賊壬辰夏, 草檄從戎已亥秋)."(23) 등이 그 단적인 예이다. 또 任叔英의 그 유례가 없는 700운 배율에 대해 쓴 작품인 〈答任茂叔七百韻〉"명나라 만력 기미년 가을에 임공이 칠백운시를 나에게 보내었네(萬曆皇明己未秋,任公七百韻품投)."(24)도 비슷한 예가 된다. 이처럼 숫자어를 활용하여 적실한 사정을 적는 작법은 특히 廬守愼에게서 배운 것으로 보인다. 盧守愼은 자신의 행적을 숫자를 통해 적실히 나타내고 있는데, 李安訥이 이를 계승하였다고 하겠다. (25)

<sup>(21)〈</sup>贈主翁朴叙堅〉,「東遷錄上」,卷十六 10b.

<sup>(22)〈</sup>正朝贈片雲上人〉,「東遷錄下」,卷十七 1b.

<sup>(23)〈</sup>奉贈德源姜府使〉,「端州錄」,卷六 2a.

<sup>(24)</sup> 이 작품은 「箕雅」 卷十에도 실려 있다.

<sup>(25)</sup> 다음 시화에 언급하고 있는 작품이 盧守愼 시에서 숫자로 자신의 상황을 적실히 드러낸 예이다. "盧公守愼, 謫居珍島, 有詩云 '天地之東國以南, 沃州城外數間庵. 有難赦罪難醫病, 爲不忠臣不孝男. 客日三千五百辛, 行年乙亥丙辰慚. 汝盧守愼將無死, 報得公私底事甚.' 盧年乙亥生云, 此詩 盖於壬辰歲作, 其謫必三千五百日時也. 又有送弟詩 '嗟吾兄弟至於斯, 一十年來五見之. 若教精衛能塡海, 千里耽羅可步追.'"(『清江詩話』194년);"盧蘇齋謫珍

이와 함께 紀實을 위해 李安訥의 시는 고유명사를 시어로 적극 활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작법 자체를 杜甫 詩에서 전범을 구하고 있기도 하다.

歲首妖氛閣魯臺 정울에 나쁜 기운 魯臺를 어둡게 하더니 (26)

虜兵中夜過江來 오랑케 병사가 한밤중에 강을 건너 왔구나.

姜韓朴一時同到 강씨, 한씨, 박씨 세 장군 일시에 이르렀어도

義郭安三鎭幷權 의주, 곽주, 안주 세 곳이 함께 무너졌네.

關路繹騷京輦潰 변방길 요란하고 서울의 수레 무너지니

教書哀痛獄門開 교서는 애통하게 옥문을 여는구나.

花山淚盡庚寅日 화산의 눈물조차 마른 경인일에

獨漏金鷄作羽能 외로운 물시계의 금닭은 날개를 달는지.

〈正月二十二日庚寅〉(「東遷錄下」, 卷十七 55b-56a)

1623년 丁卯胡亂 때의 작품이다. 조정에서 여러 장군을 내세웠지만 연이어 패배하여 임금은 다시 강화도로 피란을 갔다. 민심이 매우 흉흉하여 임금이 대사면령을 내렸지만 李安訥은 여전히 유배에서 풀려나지 못하였다. 이 작품은 이러한 배경에서 제작되었다.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額聯이다. 額聯은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의 성을 上旬에서 나열하고, 이어 下旬에서는 외적에 의해 함락된 성을 나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법은 바로 杜詩〈橋陵詩三十韻因星縣內諸官〉"王劉美竹潤,聚李春蘭馨. 鄭氏才振古,啖侯筆不停."에서 배운 것이다. 이 작품은 縣의 여러 관원의 성 여섯가지를 시어로 적어 紀實에 충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李安訥은 이를 배워 당대 현실을 구체적으로 적어내었다.

李安訥은 이러한 구법을 애용하여 "삼백일 아침 저녁 한 해는 저물었는데, 일찍이 스물 네명의 사람 집에 거처했었지. 할아비와 손자, 아버지와 아들 에다 동생들, 최씨 박씨 강씨 지씨 이씨에 서씨까지. 동서남북 거리가 아직

島時,有詩曰'天地之東國以南,沃州城外數間庵. 有難赦罪難醫病,爲不忠臣不孝男. 客日三千四百幸,行年乙亥丙辰慚. 汝盧守愼將無死,報得公私底事甚.'一時稱頌,不啣膾炙,而未免優體,詩可易言哉. 按公乙亥生,而丙辰年作此詩,故云客日三千四百,盖言謫居歲月爾."(芝峯類說』,卷十三 22b)

<sup>(26)</sup> 魯臺는 魯 殿鑒光으로 추정된다. 魯 恭王의 鑒光殿이 전란을 겪고도 무사했다는 고사가 있는데 후대에는 전란을 겪고도 건재한 사람이나 건물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왜란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은 누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도 생각나는데, 다시 차씨・송씨・마씨・홍씨・노씨를 보게 되었네(三百朝昌歲一除, 曾低四十四君居. 祖孫父子兄兼弟, 崔朴姜池李及徐. 尚記東西南北巷, 更瞻車宋馬洪盧)."(27)라 하여 성을 무려 11종이나 들고 있다. 또 "최씨・이씨・서씨・강씨・차씨・마씨는 성이요, 할아비・손자・형과 아우・아재비와 조카는 친척이로다(崔李徐姜車馬姓, 祖孫兄弟舌甥親)"(28)도 같은 작법으로 되어 있다. 李安訥이 杜詩의 전례를 이렇게 활용한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기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紀實을 위해 李安訥의 시에서는 이처럼 고유명사의 잦은 활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작법은 友情을 형상화한 작품에서 자주 구현되고 있다. 많은 고유명사를 나열하는 작법은 紀實과 더불어 벗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기에 매우 적합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憶與安東醉秀才 그리워라, 안동의 술취한 수재여

短舠乘與月中廻 작은 배로 흥에 겨워 달빛을 거닐었지.

奉恩寺裏花如雪 봉은사에는 눈처럼 흰 꽃 피었었고

挹願亭前水似苔 읍호정 앞에는 물이 이끼처럼 파렜지.

好事野人基一局 즐거운 일, 촌사람과 바둑 한판,

多情村媼酒三盃 다정하다, 촌노파가 권하던 술 석잔.

六年重到題詩處 6년 만에 다시 시 쓰던 곳 이르터

目斷南天暝色來 남녘 하늘 끝까지 바라보니 어두운 빛 몰려드네.

〈楮島許巨源淮家有懷權汝章〉(「續集」, 11b)

李安訥은 젊은 시절부터 趙緯韓의 집이 있던 楊花渡, 權韓의 집안이 세거하던 마포, 具容의 별장이 있던 楮子島, 그 밖에 西江,臺山,龍山 등지의한강의 도치와 자신의 집이 있던 남산 근치와 東國, 별장이 있던 광나루 등에서 鄭碏,李好閔,權韓,具瑞鳳,趙緯韓,趙續韓,車天輅,梁慶遇,林悌등과 교유하였다.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벗들과 수창한 작품을 많이 남기고들었지만, 그 중에서 李安訥 시의 가장 큰 주제 중의 하나는 바로 友情의형상화이다.

이 작품은 李安訥이 1597년 다시 6년전 權輕, 具容 등과 시를 짓던 한강의 楮島, 許淮의 巨源亭에 들러보고 지은 것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sup>(27)〈</sup>寄簡鏡城漁郞里中諸君〉,「東遷錄下」,卷十七 25a-b.

<sup>(28)〈</sup>七月初四日里諸人邀飮草山東臺〉,「北鼠錄」,卷十五 16b.

곳에 서서 지난날의 우정과 풍류를 돌아보았다. 戴安道와 王徽之의 고사를 통해 權鞸과의 풍류를 말한 다음, 頷聯과 頸聯에서 즐거웠던 일들을 회상하 며 지난날 놀던 장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독자로 하여금 긴 여운을 느끼 게 하였다.

이 작품에서 보는 것처럼 작품의 서두에서 상대의 이름을 시어로 노출하여 그리움을 강렬하게 표출하는 것이 우정을 형상화한 작품의 한 전형이다. "아 침에는 차사또를 보내고, 저녁에는 권치사를 보낸다(朝送車使君, 夕送權處 士)."(29)에서는 1596년 떠나가는 벗 車天輅와 權糧을 시어로 首聯에서 언급 하고 있으며, "具大受는 서쪽으로 몇 천리를 떠나갔고, 權汝章은 남으로 간 지 3년이 되었네(大受西征幾千里, 汝章南去忽三秋)."(30)에서는 具容과 權輕의 字를 거론하고 있다. "어제 효이를 위해 곡을 하고, 오늘 구대수를 위해 곡 을 한다. 아침에 자점을 보내고 저녁에 자신을 보낸다(昨日哭唐齋, 今日哭綾 城, 朝送子漸去, 暮送子愼行)."(31)는 1601년 벗 구용과 李廷冕이 죽고, 다시 梁慶遇, 林悌와 헤어지면서 쓴 작품으로 벗들의 字를 적는 것으로 시를 대 신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 밖에 "나는 조위한을 그리고, 또 권필을 그리노 라(我憶趙持世, 兼懷權汝章)."(32)도 같은 작법으로 되어 있다. 또 "무오년 김 군이, 계해년에 최군이 다시 갑술년에 이생이 왔구나(戊午金君癸亥崔, 還携 甲戌李生來)."(33)는 자신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성을 나열하였다. 이러한 작법 은 벗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읽혀 그리움이 강렬하게 전달되는 효과를 위 주로 하지만(34),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사람의 인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적는 紀實의 정신을 함께 한 것이라 하겠다.

이 작품은 인명뿐만 아니라 조선의 지명이 시어로 적극 수용되고 있는데이 역시 李安訥 시의 특징이다. 위의 예에서는 지난날 權輕과 즐거운 한때

<sup>(29) 〈</sup>別權汝章〉,「續集」10a.

<sup>(30)〈</sup>邀洪輝世瑞鳳正字〉,「續集」18a.

<sup>(31)〈</sup>醉後走筆贈別林子愼著作之羅州〉,「拾遺錄上」,卷二十二 8a.

<sup>(32)〈</sup>寄趙察方權教官〉,「端州錄」,卷六,23b.

<sup>(33)〈</sup>八月二十八日庚戌 吉州金座首景憲崔座首單仁與李生克誠金生益謙 載酒來訪 宰牛留飲 至九月初二日癸丑乃去 聊題近體二首以謝其厚意云爾.〉,「北竄錄」,卷十五,24b-25a.

<sup>(34)</sup> 이러한 작법은 李荇의〈讀翠軒詩用張湖南舊詩韻〉"읍취헌 높은 누각 오래도 목 주인 없어, 지붕 위 밝은 달에 그 모습 생각하네(挹翠試軒久無主, 屋樑 明月想容姿)."와 유사하여 연원을 짐작케 해준다.

를 보냈던 일을 추억하면서 地名을 나열하여 깊은 여운을 주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그의 증조부였던 李荇이 朴闇 등의 지기를 그리워하며 지은 작품인 〈題天磨錄後〉와 흡사한 효과를 발하고 있다. 〈題天磨錄後〉 "가랑비 내리는 영통사, 석양 비치는 만월대(細雨靈通寺, 斜陽滿月臺)"와 비교해보면 이를 잘알 수 있을 것이다.

李安訥은 이러한 작법을 좋아하여 많은 작품에서 지난날을 회상할 때 그지명을 적고 직면한 현실을 묘사할 때는 그곳 지명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李安訥은 이를 輿地志體라 하였다.

龍灣館裏逢寒食 용만관 속에서 한식을 맞았는데

鴨綠江邊多北風 압록강 강가에는 겨울 바람 거세구나.

忽憶去年麻浦月 그리워라, 지난 해 마포의 달빛 아래

一樽留醉廣陵翁 솔 한동이에 술취하던 광릉의 늙은이여.

〈次使相韻效輿地志體〉(「東槎錄」, 卷三 25a)

이러한 작품이 물론 희작에 가깝지만, 李安訥의 시는 이러한 輿地志體에 준할 만큼 조선의 지명을 자주 구사한다. 조선 후기 진경산수와 진실한 감정의 유로를 외치는 시론들이 등장하는데, 그 전초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할 수 있거니와 전술한 紀實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35)

이러한 작법은 朴間, 李荇, 盧守愼 등의 海東江西詩派에 의해 정착된 것이라는 점에서 李安訥의 이러한 작법의 근원이 海東江西詩派에 있음을 알게해준다. (36) 즉 인명이나 지명 등 기존의 시에서 쓰이지 않던 새로운 시어를 구사하여 새로운 시풍을 이끈 것이 海東江西詩派인데, 이상에서 본 대로李安訥의 시에서 보이는 이러한 기이한 작법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李安訥은 조선의 시학에서 제일의 명문가 출신이다. 李安訥은 조선 최고의 시인으로 청도되었던 李荇의 증손이요, 李荇의 지기였던 朴間의 외손이다. 李安訥은 자신의 이러한 가계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그들의 시를 숙독한 흔적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에 따라 李安訥은 시의 작법에 있어서 그의 증조부대에 맹위를 펼쳤던 海東江西詩派와 일맥을 같이

<sup>(35)</sup> 眞情과 眞境을 강조하였던 金昌翕의 대표작〈訪俗離山〉"笑別鷄龍餘興在, 馬前猶有俗離山."과 비교하면 이 점이 잘 드러날 것이다.

<sup>(36)</sup> 이하 海東江西詩派에 대해서는 졸저,『海東江西詩派研究』(태학사, 1994)를 참조하기 바란다.

하게 된 것이다. 江西詩派는 일찍부터 한국 한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거니와 이른바 海東江西詩派라 부를 만한 시인이 朝鮮 成宗 무렵부터 태동하기 시작하여 李安訥의 선매인 黃廷彧, 崔岦의 시기에까지 힘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李安訥 역시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權釋과 대비하여 李安訥의 시작법이 漸修라 한 지적이(37) 바로 단련을 중시하는 江西詩派의 습속이거니와 구체적 작법에 있어서도 江西詩派의 작법인 글자의 단련, 기이한 의경의 확보 등이 李安訥의 시에서 확인된다.(38)

그러나 그 시적 효과의 측면에서 李安訥은 海東江西詩派와 차이를 드러낸다. 이들의 시세계를 그대로 계승하였다면 李安訥이 대시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李安訥의 시는 海東江西詩派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고유명사를 시어로 구사하는 양상에 있어 朴閒과 李荇은 시적 여운이나 상대에 대한 그리움, 박진감 넘치는 의경의 발전 등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나, 李安訥의 시에 구사된 고유명사는 이와 함께 紀實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39)

<sup>(37) &</sup>quot;余問東溟曰:'石洲東岳詩誰優?'東冥曰:'石洲甚婉亮,東岳甚淵伉, 比之 禪家,石洲頓悟,東岳漸修. 二家門路雖不同,優劣未易論."(『小華詩評』119 ~120년) 李安訥과 權羁의 대비적 고찰은 鄭珉의 앞논문에 자세하다.

<sup>(38)</sup> 예를 들어 "사은 지는 해를 머금고 넓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데, 새는 사 그라드는 노을을 헤치며 아득한 하늘로 내려오네(山啣落日撑空闊, 鳥拂殘霞 下杳冥)."(〈三月三日同車五山飲于南山下占韻得靑字五山即口號二首仍命訥同 賦用記一時之興云〉)에서는 鍊字의 구사가 돋보인다. 上句의 제 2 자 "卿"과 詩眼에 해당하는 "撑"이 공교롭거니와 下句의 "拂"도 기이한 운용이라 하겠 다. 또 "병에서 일어나니 나그네 마음이 펄럭이는 깃발과 같은데, 흰 머리 되니 세상에 따르는 이 없구나(病起羈心似旆懸, 白頭於世絕隨肩)."(〈奉次 觀察使韻〉,「錦溪錄」, 卷十 26b-27a)에서는 근심을 펄럭이는 깃발에 비유한 것이 기이하다. "따스한 헷살은 꽃을 태워 농염하고, 가벼운 연기는 버들 을 물들여 새롭네(暖日烘花艷, 輕烟染柳新)."(〈春日書郡齋壁上〉, 「錦溪 錄」,卷十 48a)에서는 詩眼인 "烘"과 "染"을 통해 기발한 의경을 확보하고 있고, "언덕의 꽃은 붉음을 질투하는 듯, 제방의 버들은 푸르름을 아끼네 (岸花紅欲妬, 堤柳綠猶慳). (〈次慧圓上人詩軸韻〉, 「拾遺錄上」, 卷二十二 28b)에서는 꽃과 버들을 의인화한 "妬"와 "慳"이 韻字의 위치에 쓰인 공교 로운 글자이다. "세상사 일장춘몽 같음을 이제야 알리니, 근심의 성을 부 수리면 술군사가 있어야겠지(從知世事如春夢, 耍破愁城有酒兵)."(〈奉酬月 沙相公疊用鄙韻見寄之作時萬曆戊午仲秋下瀚〉,「江都錄」, 卷十二 27b-28a) 에서는 근심을 성에 비유하고 근심을 깰 수 있는 술을 병사에 비유하였는 데, 소설〈愁城志〉등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어서 이 역시 江西詩派의 특성 이 구현된 작법이라 하겠다.

<sup>(39)</sup> 盧守愼이 고유명사를 활용한 방법을 李安訥이 크게 참조한 듯하다. "珍島 通南海, 丹陽近始安."(〈挽金大諫鸞祥〉,『國朝詩刪』卷五)에서 "南海"와 "丹

李安訥의 작법과 관련하여 하나 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韓愈와의 관련상이다. (40) 韓愈는 柱甫 시 중에서 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奇"의 미 감임을 간과하여 "奇"의 미감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41) 李安訥 이전에도 海東江西詩派 시인들은 韓愈 시의 기이함에 관심을 가졌지만, 특히 李安訥을 위시한 당대의 시인들이 韓愈의 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唐風을 추구하려는 과정에서 시가 지나치게 릿밋해져버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李安訥의 작품에서도 韓愈 시의 영향은 산문적인 어투를 중심으로 한 강한 어기와 기이한 표현에서 드래나고 있다.

城頭六月風倒吹 성머리 6월에 바람이 거꾸로 부는데

下有不測之天地 아래로는 헤아릴 수 없는 천지가 있구나.

三島橫分巨鼇背 세 섬이 큰 자라 등처럼 가로로 나누어지고

九輪側掛扶桑枝 아홉 개의 바퀴가 부상의 가지에 비스듬히 걸렸네.

靑山盡處欲飛動 푸른 산이 다한 곳은 날듯한 형상이요,

白鳥去邊無際涯 흰 새 간 곳은 끝없이 펼쳐져 있구나.

平生讀書五千卷 평생 오천권 책을 읽었거니

望海亭中一賦詩 망해정 속에서 한번 시를 짓노라.

〈望海亭作〉(「朝天錄」,卷二 19b-20a)

李安訥의 시는 제 1 연에서부터 율격적으로 기이함을 창출하는 특이한 구법을 자주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구법은 작품의 기세를 강하게 하여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독자에게 읽히도록 하고 있다. 앞에서 李安訥이 杜詩의 학습을 통해 雄渾한 시세계를 창출하였음을 말하였거니와 이 작품 역시 그러한 계열의 것이라 하겠다.

李安訥은 이와 같은 산문적 구법으로 웅장하면서도 기이한 미감을 창출하

陽"은 1547년 丁未壁書 사건으로 유배된 金鸞祥의 이력을 나타내고, "珍島" 와 "始安"은 盧守愼의 유배지를 나타낸다. 이들 지명이 서로 통하고 가깝다고 한 것은 서로가 유배되었을 때 자주 교유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sup>(40) &</sup>quot;近代學詩者,或以韓詩爲基,杜詩爲範,此五山東岳所教也.石洲雖終學唐律,初亦讀韓.崔孤竹末年才涸氣萎,亦讀韓詩.吾雖學淺,殊不欲讀韓.既被諸公勸誘,熟觀一遍,其律絕固唐格也,不妨與杜詩竝看,大篇傑作則乃楊馬詞賦之換面也. 與讀其詩,寧讀楊馬之爲高也.惟晚唐筆退者,抄讀百餘篇,則如敬字之補小學功,容可救急得力,若才學俱瞻者,不必匍匐於下乘也."(『學詩準的』「別集』卷14,17b)

<sup>(41)</sup> 莫礪鋒、『江西詩派研究』、齊魯書社、1986.

고 있다. "무가 승진은 아니지만 군이 어찌 좌천이랴? 이 몸은 세상사에 본디 무심하도다(府亦非昇郡豊沈、是身於世本無心)."(42) "답청을 하러 가고"싶 지만, 흰 머리 드리워진 것을 어쩌랴(卽欲踏靑去, 其如垂白何)?"(43), "포구에 서 서쪽으로 바라보니 나무 무성한 산이 휘돌아 있는데, 그 가운데 만경 창과 잠겨 있구나(海門西望林樹紅, 中涵萬頃之澄湖)."(44), "신묘년에 태어나 명 석하나 고아되니, 단천군의 백성이 스님됨을 아쉬워 하였다(生於辛卯晬而孤, 端郡之氓病苾勸)."(45) 등 많은 시구절이 산문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다. 이러 한 예들은 산문의 언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산문적인 언어를 시어 로 구사하여 기이하면서도 웅장한 미감을 확보한 것이라 하겠다. 紀實을 위 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투박하게 적어내는 이러한 작법 때문에 높은 산에 구름이 없고 큰 물은 파도가 일지 않아 시가 웅장하지만 기교가 적다는 평 을 받기도 하였다. (46)

李安訥이 특히 변방에서 지은 시에 이와 같은 구법을 통해 웅장한 미감을 발휘한 것이 많다. (47) 다음은 특히 산문적 구법을 통해 우리 국토의 웅장함 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작품이다.

豆滿之江出自白頭山

其源瀄汩流淙淙

東馳千里入于海

溶溶灌灌無濤龍

두만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빠른 물살로 나와서 끝없이 흘러 내리네.

동으로 천리를 달려 바다에 이르니

굼실굼실 파도조차 일지 않는구나

江兮江兮旣不能汪汪百頃深莫測 강이여, 백 이랑 넓이에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은 아니고

又不能洪波巨浪相春撞

또 큰 파도가 내려치지도 않는다네.

- (42)〈十月十二日拜辭闕下行出京城而作〉,「錦溪錄」,卷十 1b.
- (43)〈三月三日〉,「拾遺錄上」,卷二十三 23b.
- (44)〈題永保亭〉,「洪陽錄」,卷七 8b-9a.
- (45)〈贈片雲上人〉,「北竄錄」,卷十五 45b.
- (46)"車滄洲評東岳詩曰:'子敏之詩,如衡岳無雲,洞庭不波.'盖謂詩格雄拔鉅麗, 而差小奇巧造化之意也。"(『壺谷詩話』, 397년)
- (47) 李安訥 시의 웅장한 풍격은 다음에 명시되어 있다. "許筠評石淵詩曰:'汝 章之詩、如絕代佳人,不施鉛朱,以遏雲聲,唱羽調界面調於燭下,曲未終而起 去.'盖指詩語自然可愛,久而愈不忘也. 車滄洲評東岳詩曰:'子敏之詩,如衡 岳無雲,洞庭不波.'盖謂詩格雄拔鉅麗,而差小奇巧造化之意也. 權之'空山 木落雨蕭蕭',李之'江頭誰唱美人詞',皆爲鄭松江而作,而俱是絕響, 世不敢 輕重, 盖權之首句, 有如雍門琴聲忽然驚耳, 使人無不零涕, 李之末句, 有如赤 壁簫音不絕如縷, 猶含無限意思, 雖難優劣, 然格調則權勝. "(『壺谷詩話』, 397년);"李東岳安訥之混雄"(『壺谷詩話』,388년).

逶迤一带可徑度 曷足固我三韓邦 굽이굽이 한 줄기 길을 내었으니 어찌 우리 삼한땅을 공고히 하지 않으랴?

(下略)

〈豆滿江歌爲節度使李令公作〉(「北塞錄」、卷一 13b-14a)

굽이굽이 3,000리를 흐르는 두만강의 거대한 물줄기를 형용한 작품이다. 古詩이므로 글자의 수를 고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더욱 강건한 맛을 풍기게 하였다. 이와 함께 고유명사의 활용과 산문적 구법이 이 시의 웅장함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李安訥의 시 중에서 변재에서 지은 것에 이러한 특징이 자주 나타난다. "시절이 위태하니 강개하여 몸을 펼치고 일 어났구나,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찌 문자 속에 늙어 죽을 수 있으랴? 홀연 유관을 벗어던지고 무과로 나아가서 손에 흰 깃털 달린 화살과 좋은 활 을 잡았네. 장대한 마음은 나라에 몸을 바칠 것을 맹세하였고, 낯선 곳에서 공을 세우기를 기약하였지. 나 또한 군사일을 말하고 기이한 책략을 좋아하 지만 그대 웃는 모습 한번 보니 의기가 긴 무지개 같이 뻗어 있네(時危慷慨 奮身起, 大丈夫生世寧能老死文字中, 忽脫儒冠就武學, 手持白羽之箭鳥號弓, 壯心誓許 國, 異域期立功. 我亦談兵好奇策, 逢君一笑意氣如長虹)."(48)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하나 덧붙일 것은 李安訥의 시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紀實의 精神과 奇異와 雄渾의 미감이 시에 여운을 줄이는 한 폐단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李安訥의 시가 막혀 있다는 평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49) 李安訥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반복적 표현을 매우 즐겨 구사하고 있다. 李安訥의 시가 唐詩의 流麗함을 겸하고 있다는 평이 바로 반복적 표현에서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0) 李安訥은 반복적 표현과 더불어 隔句對를 자주구사하고 있는데, 격구대는 古詩에서 자주 구사되는 것이지만, 李安訥은 근체시에 이를 구사하여 강한 율동감을 확보하고 있다.

<sup>(48)〈</sup>次相韻贈義州通判〉,「東槎錄」,卷三 21a.

<sup>(49) &</sup>quot;近日,李實之能詩文,雖似冗雜,而氣自昌大,可謂作家. 然不逮汝章多矣. 實之眼高,不許一世人,獨稱余及汝章子敏爲可. 其曰:'許**飫**,權枯,李滯.' 亦至當之論也."(『惺叟詩話』329년)

<sup>(50) &</sup>quot;人謂子敏詩鈍而不揚'者非也. 其在咸興, 作詩曰: '雨晴官柳綠毿毿, 客路初逢三月三. 共是出關歸未得, 家人莫唱望江南.' 清楚流麗, 去唐人奚遠哉." (』惺叟詩話』, 330년)

身似浮萍鬢似蓬 이 신세 부평초 같고 머리털은 다북쑥 같은데,

無家無食苦西東 집도 없이 밥도 없이 고생스레 동서로 떠돈다.

今年三百九旬日 금년 삼백구십일 중에서

三百四旬行路中 삼백사십일을 길바닥에 있구나.

〈閏十一月十日庚寅林川途中〉(「續集」, 7a)

1593년은 윤달이 끼어 한 해가 390일이 되는데, 이제 閏十一月 十日이므로 340일 내내 노중에 떠돌고 있다고 한 것이다. 李安訥의 시에는 이처럼 숫자를 사용하여 이력을 나타낸 것이 매우 많음은 전술한 바 있다. 숫자어를 시어로 사용하면 자칫 작품의 품격이 비속하여 優俳體로 폄하되기 쉽다. 이작품 역시 俳優體라 할 만하다. (51) 앞에서 예로 든 盧守愼의 작품과 비교할때 자신의 상황을 적실하게 적어 기이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李安訥은 동일한 한자를 반복적으로 구사하여 음악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起句의 "似", 承句의 "無", 轉句와 結句의 "三百"과 "旬"이 그러한 글자이다. 근체시에서 같은 글자를 중복해서 쓰는 것이 금기시되지만, 李安訥은 이에 구애되지 않았다. 杜甫의 시에도 이러한 것이 발견된다는 전례가 있거니와, 紀實의 억색한 내용을 시다운 울동으로 보충하기 위해 작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廬守愼의 시에서 볼 수 있는 宋詩의 기이함이 감쇄되고 대신 唐詩의 홍취가 생기게 된 것이다.

李安訥의 시에서 반복적 표현은 거의 매 작품에 나오다시피 한 것이다. "초당에는 오월에 솔바람이 서늘하고, 초당에는 칠월에 연꽃이 향기롭다. 연꽃은 못 가득, 가을물은 푸른데, 이때에 포도주는 막 익었네(草堂五月松風凉, 草堂七月荷花香. 荷花滿塘秋水綠, 是時葡萄酒初熟)."(52), "복주성 위에는 솔숲이 많은데, 복주성 바깥에는 푸른 바다 깊구나. 어제와 오늘 비는 그치지 않는데, 남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바라보니 하늘이 정히 어둡네(福州城上 多松林,福州城外滄溟深. 昨日今日雨不絕, 南望北望天正陰)."(53) 등도 그러한 에이다.

이러한 반복적 표현은 李安訥이 시에서 음악적 요소를 매우 중시하였음을 말해준다. 李安訥은 詞의 제작에 상당한 조예를 보였고, 또 노래로 불리워지

<sup>(51)</sup> 李睟光이 이른 俳優體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책, 3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sup>(52)〈</sup>顯沔川郡滄澤里子聖安仁兄章堂壁上〉,「續集」, 30a.

<sup>(53)〈</sup>八月五日雨書懷奉寄任寬甫趙持世權汝章題君子〉,」端州錄」,卷六,16a.

는 한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시 자체를 詞처럼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제작한 것도 여러 편 발견된다. 모친의 칠순잔치 때는 임금이 쌀과 기름, 어물, 꿀 등 잔치에 쓰일 물건을 보내주었고 成川府에서는 伎樂을 보내주었는데, 李安訥은 〈今夕何夕詞〉를 지어 노래부르게 하였다. (54) 또 端川이 벼슬 온 자나 귀양은 자 모두 강개한 마음이 없을 수 없다 하여 〈磨雲曲〉 2수를 지어 迎賓의 음악으로 삼고 〈磨天曲〉 2수를 지어 送賓의 음악으로 삼 았으며, 〈關山詞〉 3수를 지어 손을 머물게 하는 음악으로 삼아 敎坊에 보내어 연주케 한 바 있다. (55) 이 외에 〈東園先生醉時歌〉도 유사한 작품이다. (56) 東國先生이라는 자는 기괴한 취향을 가진 선비로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에 쓰이지 못해 오직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박수로 장단이나 맞추고 어물어물하다가 소리를 벅벅 지르는 정도로 음치였다고 한다. 이를 두고 李安訥이 3편의 詞를 지은 것이 이 작품이다. 〈鷄林勸酒謠〉도 노래로 불리워진 한시로 추정된다. (57)

李安訥이 국문시가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鄭澈의 〈思美人曲〉을 듣고 여러 편의 시를 지은 바도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58) 또 宋純의 〈俛仰亭歌〉를 듣고 여러 편의 시를 짓고 있다. (59)

李安訥이 이를 넘어 몇편의 시조를 지어 부르게 하였다는 점도 그의 음악에 대한 관심을 입증해준다. 귀양가 있을 때는〈歸雁歌〉를 지었는데 片雲師가 노래로 불러 주었다고 한다. (60) 또〈憂民歌〉를 지었다는 기록도 남아

<sup>(54) 「</sup>關西錄」, 卷五, 6b-8a에 해당 기록이 보인다.

<sup>(55) 「</sup>端州錄」,卷六 7a-8b에 해당 기록이 보인다.

<sup>(56)「</sup>續集」21b-22a의 작품 서문에 경위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sup>(57)「</sup>月城錄」, 卷十一 16b.

<sup>(58)〈</sup>龍山月夜聞歌姬唱故寅城鄭相公思美人曲率爾口占示趙持世昆季〉(「續集」, 21a-b) 와〈聞玉娥歌故寅城鄭相公思美人曲〉(「續集」, 21a-b) 등이 그러한 예이다. 특히 뒤의 작품은〈聞歌〉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서에서이 노래를 사랑 노래로 보고 있으나, 동의할 수 없다. "江頭誰唱美人辭, 正是江頭月落時. 惆悵變君無限意, 世間唯有女郎知."라 했을 때 "變君"을 사적인 연심으로 보기 어렵다. 이 작품은 鄭澈의 충성심이다 잊혀지고 오직기생만이 이를 안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한다. 美人이 임금을 지칭하는 것은 漢詩의 전통이거니와 李安訥이 鄭澈을 屈原에 비의하여 이 작품을 지은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sup>(59)〈</sup>俛仰亭次壁上韻·一〉,「潭州錄」,卷九 11b.

<sup>(60)〈</sup>寄片雲上人〉(「江都後錄」,卷十八 21a-b)의 注에 "余竄鏡城時, 曾以俚語作 歸雁歌二闋,師常爲余唱之以慰余,故云."이라 되어 있다.

있다. (61) 나무꾼이 베고 농부들이 불을 질러 죽게 된 들판의 매화나무를 옮겨 심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함께 심어 풍류를 과시하고 이를 기념하여 절구 4편을 지었으며 다시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기생들로 하여금 이를 노래하게 하기도 하였다. 비록 그 가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絕句가 남아 있어 그 내용은 집작케 해준다. (62)

李安訥이 이처럼 노래부를 수 있는 한시를 지은 것이나 국문으로 시조를 지은 것은 당대 사대부 풍류문화의 일단을 보여주거니와, 딱딱해지기 쉬운 紀實의 문학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음악에 큰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볼수 있을 듯하다.

#### (2) 紀實의 시세계

이처럼 李安訥은 杜詩의 紀實의 시정신과 현실주의적 작법을 수용하여 전쟁 등으로 피폐해진 조선의 현실을 직재하게 묘사하며 그 속에 愛民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음을 보았다. 李安訥은 첫 부임지부터 함경도였고, 그 후대부분의 환로가 변방이며, 그렇지 않으면 사행길에 있을 때가 많았기에, 그의 시는 환로와 사행길에서 목도한 현실을 사실적 수법으로 적어내게 된것이라 하겠다.

新晴憂旱雨憂霪 날이 개단 가뭄 걱정, 비오면 장마 걱정,

莅邑偏勞望歲心 고을에 서서 한 허를 바라는 마음 부질없이 피곤하다.

去夏大蝗人轉壑 작년 여름 큰 메뚜기떼로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고

.. 前秋早雪穀逾金 지난 가을엔 때이른 눈으로 곡식이 금값이었지.

花飄山郭鶯聲滑 꽃이 산성에 날리니 꾀꼬리 소리 고와지고

水漾沙堤柳色深 물이 재방에 출렁거려 버들빛이 진해지네.

行遍里閻煩省俗 - 두루 다을을 돌아다니며 번거로이 풍속을 살피니

二年春事一悲吟 이태 사이 봄일이 슬픈 노래뿐이구나.

〈春曉書懷〉(「端州錄」, 卷六 27b-28a)

전쟁이 끝난 지 7여년 지난 1694년 端川府使로 있을 때의 작품이다. 가뭄

<sup>(61)〈</sup>奉次李判官汝涵見貽二首韻〉(「江都後錄」,卷十八 19b-20a)의 序列"余嘗用 俚語憂民短歌李判官飜以文字,寅成菩薩蠻一章."이라 하였다.

<sup>(62) &</sup>quot;東閣新移梅一塚,坐憐零落野田中.年年花發黃昏月,回首春風記老翁.";"參差玉節千干竹,偃蹇龍姿十丈松.辛苦移栽無剪伐,雪中看取翠陰重.";"春城雪後栽松日,夏院霖中種竹時.宫吏莫嘲偏愛物,使君心事歲寒知.";"竹實本非一似李,松花那得艷如桃.不栽桃梨栽松竹,四序常青一節高."(〈題迎春軒〉、(〈月城錄〉,卷十一 20a-21a)

과 홍수, 병충해와 이른 눈 등 자연재해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으니 "지난해는 가을 장마로 쌀이 珠玉 값과 같아서 밭머리에는 밥 이고 잘 아낙네가봄나물 캐야 하겠네(去歲秋霖米敵珠, 田頭饁婦掇春蔬)." (63)라 한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봄경치가 절로 슬픈 노래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頸聯에서는 西崑體를 연상케 할 만큼 美麗한 표현을 구사하여즐거워야 할 봄날과 그렇지 못한 현실이 강하게 대비되어 작품의 미감을 더욱 우수하게 하였다.

獨坐鈴齋寂 고요한 군막에 홀로 앉아 있노라니

庭花又一春 뜰의 꽃이 또 한 봄을 맞았네.

此身非疾病 이 몸이 병든 것도 아니건만

何事輒嚬呻 무슨 일로 이리 자주 신음하는가?

鬼戶煩徵布 죽은 집에도 고통스럽게 군포를 내라 하고

孀田急採銀 과부의 집에도 급하게 은을 캐라 독촉하네.

更堪州牒至 고을에 문서 내려옴 어찌 견디랴?

公讌督時新 관청의 잔치자리 독촉이 때로 새롭네.

〈獨坐書事〉(「端州錄」,卷六 28a)

이런데도 조정에서는 죽은 자에게까지 군포를 강요하고, 과부에게도 은을 캐올 것을 강요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급관료로서 백성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애정이 있었기에 그에 대한 백성의 믿음은 지극하였고,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이 더 머물러주기를 원하였으며, 훗날 江華府使에서 과면되었을 때는 백성들이 탄원을 올리기도 하였다. 또 귀양지의 주민들이 그를 따뜻이 대접하였음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李安訥의시는 이처럼 자신이 처해 있는 실정과 눈에 보이는 상황을 시에 매우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李安訥은 1617년 6월 2일 備邊使로 천거되어 강화부사로 가게 되는데, 이때의 감회를 적은 작품은 자신의 이력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를 대신할 정도이다.

己亥淸和釋褐人 기해년 맑은 봄날 잘옷을 벗은 사람이

佩符關郡自壬寅 변방으로 부절찬 것 임인년부터라.

西南湖嶺仍東尹 시남에서 영호남으로 경주까지

<sup>(63)〈</sup>春日郊行絕句〉,「端州錄」,卷六 27b.

四十星霜又七春 40개 성상에다 7번의 봄을 더하였지.

却荷吹噓叨迪簡 문득 推薦을 입어 외람되이 관직을 받았고

兼拚咳唾賁征輪 검하여 싯구나 다듬다가 수례에 올랐다.

亂中負米羈棲地 난중에 쌀을 지고 피란을 다니던 곳,

五馬生輝一慘神 태수 행차 빛나지만 정신은 온통 아찔하다.

〈丁巳六月初二日乙未以備邊司薦授江華府使云云〉(「江都錄」,卷十二 1a-b)

已亥年 봄에 정시에 합격하여 임인년 端川郡守가 된 일로부터 홍주목사, 동래부사, 담양부사, 금산군수, 경주부윤 등 관서와 호남, 영남, 경주 등지의 외직을 전전한 자신의 이력을 적고 자신의 나이 47세를 밝혔다. 또 임란때 왜적을 피하여 관북으로 갔다가 다시 강화도로 와서 살았던 사실까지부기하였다. 게다가 尾聯의 하구는 이제 강화부사에까지 이르렀지만 이해 태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까지 더하고 있다. 시라고 하기 어터울 만큼 자신의 이력을 열거하고 있다.

高城四面石崔嵬 높은 성이 사면 우뚝 솟은 바위로 둘러 있는데

十九官中大鎭開 19개의 관청 속에 큰 진이 열려 있네.

金馬川通滄海曲 금마천은 굽이 도는 푸른 바다와 통해 있고

伽倻山斷白雲隈 가야산은 흰 구름 모퉁이에 끊겨 있네.

康翁蓮祖分符地 강옹과 연조가 부절을 나누던 곳에

鄭老蘇仙接踵來 정늙이와 소신선이 이어서 왔구나.

七世一家三作牧 7세에 한 집안이 3명이나 사또가 되었지만

短篇還愧乏雄才 짧은 글에 뛰어난 재주 없음이 도리어 부끄럽네.

〈題東軒〉(「洪陽錄」, 卷七 3b-4a)

이 작품은 1607년 洪州牧使로 부임해서 지은 것이다. 首聯에서는 洪州城의 위세를 上旬에서 말한 다음,下旬에서 높은 돌성 속에 있는 19개의 관사속에 우람하게 자리잡은 東軒을 그렸다. 額聯은 洪州城의 지리를 말한 것으로 서쪽으로 金馬川이 황해로 흐르고,동으로 伽倻山이 있다고 하였다. 頸聯과 尾聯은 바로 李安訥 시의 특징인 紀實에 가장 충실한 부분이다. 頸聯의 上旬에서 6대조 李明晨이 이곳의 牧使를 역임하였고,高祖父 李宣茂가 또 이곳의 牧使를 지냈다는 것을 말하고,다시 下旬에서 鄭士龍과 蘇世讓이 연이어 牧使로 온 곳임을 밝혔다.尾聯은 이를 다시 종합하여 7세에 자신을 포함한 세 명이 목사가 되었다고 하였다. 洪州의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모두 말하여 물誌의 성격이 강한 작품이 되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紀實의 정신을 보여 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이처럼 자신의 체험과 이력을 바탕으로 한 李安訥의 시는 日記와 다름없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가 문학적 형상화를 거치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투박하게 시에 그대로 수용되고 있어 오히려 이 때문에 더욱 강한 사실감을 느낄 수 있다.

少奴嗔喝老奴唏 젊은 종은 소리치고 늙은 종은 탄식하며

婢對空爐手捧頤 여종은 빈 솥을 대하고 손으로 턱만 괴고 있구나.

其說北槽多滓汁 "북쪽 집의 구유통엔 쌀뜨물 많다고 함께 말하고

知看西甑盛蒸炊 서쪽 집의 시루에 떡이 가득한 것을 보는구나. 異鄕久住終何樂 타향에 오래 있어 무슨 낙이 있으랴?

元日新經亦苦飢 설날을 다시 보내도 굶주림은 한가지라."

我攤此言無所答 내 이 말 듣고 답할 것 없어서

燃髭空復細吟詩 수염을 쓰다듬고 그저 작게 시를 읊노라.

〈正月初十日〉(「東遷錄下」,卷十七 2b)

1626년 李安訥은 李括의 난을 평정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죄목으로 鏡城에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 쓴 작품에는 자신의 생활상이 매우 평이하면서도 솔직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는 여종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현실감을 돋우었다. 〈四月十五日〉에서 아전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과 같은 작법을 구사하여 자신이 생계의 곤란상을 직접 말하는 것보다 더욱 사실적인 전달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물론 李安訥의 한시가 愛國과 安民으로만 점철된 것은 아니며 시대부와 승려와의 友情을 담아내며 조선의 풍속이나 역사를 적극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이에 못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때에도 사실을 적는다는 紀實의 정신이 관류되고 있다. 목숨이 경작에 달린 피란의 와중에 지어진 작품이 앞에서 본대로 전쟁 체험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거니와, 조선의 풍속을 시에 수용하여 더욱 조선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7 元夕人間節本嘉 대보름은 세상에서 본디 좋은 명절이라,

海東風俗最繁華 海東의 풍속에서 제일 번화하였지.

醫聾酒味偏宜冷 귀밝이술은 오로지 차게 해야 제 맛인법,

賣暑兒曹謾自譯 더위파는 아이들 소리는 요란하다네.

: 糯飯乞來知幾處 수반을 빌어오는 것이 몇 집이던가?

紙鳶飛去落誰家 중이연이 날아가 누구 집엔가 떨어졌지.

可憐今日于戈裏 슬프다, 오늘 난리통에 往事凄凉只獨嗟 처랑한 지난 일을 탄식하노라. 〈上元〉(「續集」, 6a-b)

전쟁이 가일층 치열해지던 1593년 정월 대보름날 지은 것이다. 대보름을 맞아 태평시절을 돌아보았는데, 어른들이 귀밝이술을 마시고, 아이들이 더위사라며 소리치던 풍습, 그리고 병자가 병을 낫게 하려고 수반을 빌어 오는 습속과 연날리기 풍속 등 대보름의 민속이 소상하게 용해되어 있다. (64) 成俔의 〈香飯〉이나 金宗直의〈東都樂府〉등의 紀俗樂府와 유사하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古詩, 혹은 樂府風이 아니라 근체 율시에 紀實을 시도하였다는점이 새로운 면모이다. 또 海東江西詩派를 부정적으로 계승한 당풍의 시를 구사하던 시인들의 작품에서 허구적이면서 보편적 정서를 노래하여 홍취를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이 작품은 근체시의 서정 속에 紀俗의 의지가 돋보인다는점에서 바로 사실주의를 지향하는 조선 후기 한시의 한 단서가 될 수있다.

李安訥의 시에서 풍속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를 시에 수용하는 것도 紀實의 내용이 되고 있다.

西京自是三韓脊 평양은 예로부터 삼한의 척추라.

城郭周遭亘阡陌 성곽이 두루 밭두둑까지 이어져 있네.

中藏巨室萬餘戶 그 사이 큰 집 만여호가 들어 있어

吹笙擊鼓喧日夕 피리소리 북소리 밤낮으로 요란하다.

建都肇自檀君來 나라 세워 서울로 삼은 것은 단군 임금부터요.

逮我朝鮮雄府開 우리 조선에 이르러 웅장한 대호부가 세워졌지.

不圖海寇恣吞噬 뜻하지 않게도 왜구가 멋대로 노략질하여

- 靑丘頌洞迷黃埃 - 푸른 언덕 골짜기 기울어져 누런 먼지에 횝싸였다.

(하략)

#### 〈次顧天使平壤行韻〉(「東槎錄」, 卷三 30a-b)

이하에서는 明의 명장이 왔지만 불행히 전몰하고,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온 顧天使에 대한 칭찬을 덧붙였다. 상대에 대한 칭찬을 하기 전에 평양의 역사를 사실적 수법으로 적어내어 조선인의 자부심을 잃지 않았다. 특히

<sup>(64)</sup> 이 작품은 2수 연작으로 되어 있는데, 其二에서도 농부들이 달을 보며 풍년 이 들 것인가를 점치던 풍속과, 일년의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十二石橋를 탋던 풍속이 額聯에 수용되어 있다.

檀君의 존재까지 들먹이는 것은 그 역사의 유구함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 작품이 비록 전형적인 懷古詩라 할 수 없지만, 역사의 현장에서 지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평양의 역사를 자세히 적어 중국 使臣에게 조선인으로서의 궁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것이다.

李安訥이 이러한 작품을 짓게 된 이유는 거듭 강조한 대로 紀實이 그의 시를 관류하는 시정신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지만, 조선인으로서의 조선 적인 시를 써야 한다는 인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선인이기 때문에 조선 적인 시를 써야한다는 인식은 중국과 우리가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요, 이는 다시 조선인으로서의 한계 인식을 전제로 한다. 李安訥은 북 경의 大明宮에서 대국의 문화를 보고 지은 〈我生歎〉(65)에서 좁은 조선에 태 어난 것을 탄식한 바 있거니와, 〈使相再用前韻爲七言長句遂依次〉(66)에서는 "나는 옛사람에 미치지 못함을 한하고, 또 중국에 태어나지 못했음을 하하노 라, 매번 산동의 이태백이 포의로, 일찍 청운객이 되었음을 부러워했네. 미 친 노래로 방탕하게 양과 송을 떠돌며, 육신을 벗어던지고 표연히 먼 곳에서 노닐고 싶어라. 한쪽 구석 삼한은 장사를 속박하니, 달팽이 움추리듯 하늘 을 홀로 지고 있다네(我恨不及古之人,又恨不得生中國. 每羨山東李太白, 布衣早作 青雲客. 狂歌放蕩梁宋間, 脫身飄然恣遠矚. 東韓一隅東壯士, 獨守壅天同蝸縮)."라 하 였다. 조선에 태어난 것을 한스럽게 여긴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사대적 발 상이지만, 크게 보면 민족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 태 어나 중국적인 문화를 향유하고 또 창출하지 못할 바에야 어쩔 수 없이 조 선적인 것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요, 이러한 인식이 민족문학의 선구가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다만 만나는 일을 대략 적었을 뿐이니, 후대의 군자들이 시로서 보아주지 않았으면 다행이겠다(略敍其遭云爾, 後來君子, 幸勿以詩觀)."(67)에 밝힌 대로 李安訥은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적인 수법으로적어내고자 하였다. 조선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紀實의 정신이 어울어진 작품은 특히 李安訥이 유적지를 지날 때 지은 懷古詩에서 잘 드러난다.

<sup>(65)「</sup>朝天錄」, 卷二. 29a-30b.

<sup>(66)「</sup>東槎錄」, 卷三 8a-9a.

<sup>(67) 〈</sup>題嶺南新樓〉의 序, 「萊山錄」, 卷八, 55a-b.

전술한 대로 李安訥은 1607년 東萊府使로 있다가 대마도와 화평하는 데 불만을 품고 관직을 그만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후임이 이르지 않아 실의에찬 나날을 보내면서 경주를 여행하였다. 이때의 작품은 이러한 계열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落日鷄林國 계립국에 해가 지니

傷心鮑石亭 포석정에서 상심하노라.

一州仍六部 한 고을이 육부에서 나왔고

三姓了千齡 세 성받이는 천년에 이른다.

苑廢川雲黑 정원은 묵어 시내에 비친 구름조차 검고

城空野草靑 성은 비었지만 들풀은 푸르네.

山河又經戰 산하가 또 전란을 겪었으니

玉笛不堪聽 옥피리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

〈慶州館作〉(「萊山錄」, 卷八 53a)

이 작품에서 계림의 포석정을 지나면서 역사에 대한 무상감을 말하였지만, 額聯에서는 신라의 역사를 약술하고, 이어 頸聯에서는 역사의 무상감에 대한 자연의 영원함을 말하였다. 尾聯은 萬波息笛의 고사를 떠올리며 현재로 돌아와 폐허가 된 고도 경주에 대한 비애를 말하였다. 〈次嶺南樓舊韻〉(68)에서도 "화려한 누각은 중홍의 때에 중건되었는데, 새 노래가 어느 것이 고려보다 뛰어날 수 있으랴? 가야의 여러 산이 모두 아래에 있는데, 혁거세의 옛 나라는 이곳을 변방으로 하고 있도다(華樓重建重興天,新詠誰凌麗代前. 駕洛諸山皆在下, 赫居故國此爲邊)."이라 한 바 있다.

1613년 李安訥은 금산군수에서 다시 경주부윤으로 자리를 옮긴다. 6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紀實의 시정신은 지속되고 있다.

北嶽連雲起 북악에는 구름이 연이어 일어나고

西川繞郭來 서천은 성곽을 둘러 흘러 들어오네.

城荒塔孤立 성은 묵어 탑은 외로이 서 있고,

野曠鳥雙回 들은 비어 새들만 쌍쌍이 돌아온다.

馬井基神異 마정에는 신이함이 깃들었고,

魚亭醉景哀 어정은 경애왕이 취한 곳.

無憑問三姓 세 성받이를 물을 데 없는데

<sup>(68)「</sup>萊山錄」, 卷八 56b-57a.

九聖但空臺 다만 아홉명의 성인 눌던 누대는 비어 있구나. 〈顯迎春軒三首用板上五峯李相公金藏袋韻〉(「月城錄」,卷十一 5a)

먼저 경주의 지형을 말한 다음, 오랜 역사가 지난 네다 전란까지 겪어 황량해진 모습을 그렸다. 頸聯은 특히 기실의 시정신이 돋보인다. 혁거세의 탄생 신화와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국정을 돌보지 않고 놀던 사실을 시로 수용하였다. 또 尾聯에서도 어느덧 新羅의 세 始祖의 자취는 찾을 수 없는데, 성인이 놀던 누대는 텅 비어 있다고 하였다. (69)

1610년 2월 21일 李安訥은 담양부사가 되어 다시 외직으로 나갔다. 담양에서 지은 작품 역시 백제의 유적지를 돌아보며 紀實의 정신을 작품에 투영하고 있다.

西窮大海北浿河 서쪽은 큰 바다로 이르고 북은 패강에 이르는 곳,

**紇骨扶餘爲一家** 홀골과 부여가 한 나라가 되었네.

是時三國若鼎峙 이때는 삼국이 솥발처럼 서있었는데

溫祖建邦奇端多 온조왕이 나라를 세워 기이함이 많았다.

覇業綿綿七百祠 왕업이 면면히 700년에 이어져

併吞馬韓開耽羅 마한을 병탄하고 탐라를 개척했다.

泗沘新都壯且麗 사비성 새 서울은 장대하고 화려한데

前築叢臺後章華 앞에는 누대를, 뒤에는 궁궐을 연이어 세웠지.

成忠不食義慈醉 성충이 단식해도 의자왕은 취해 있어

滿江風雨飛宮花 강 가득 비바람에 궁녀들이 꽃처럼 날렸지.

旅墳何處傍歸命 이역은 무덤은 어딘가 귀순한 곳에 있겠지,

故城荊棘暗銅駝 옛 성에는 가시풀이 동타를 뒤덮었다.

大唐將軍蘇定方 당나라 장군 소정방의

斷碑至今傳凱歌 끊어진 비석이 지금도 개선가를 전하네.

客來弔古春日暮 나그네로 옛일을 조문하니 봄날이 저무는데

白馬江空生綠波 백마강은 비어있고 푸른 파도는 일어나네.

〈扶餘縣用板上諸公韻〉(「潭州錄」,卷九 4a-b)

이 작품 역시 실재한 역사를 충실히 재구하면서 그 속에 회포를 부치고 있다. 철저히 紀實의 정신을 반영하여 인명과 지명의 구사를 꺼리지 않고

<sup>(69)〈</sup>暎翠軒席上記與示李希聖提督〉(「月城錄」,卷十一 18b-19a)"笛傳波息曲,琴奏寶高音."이나,〈六月雨中與李提督希聖飲〉(「月城錄」,卷十一 26a)"鄉樂新羅譜,黃倡舞更眞",〈西軒席上醉贈李提督〉(「月城錄」,卷十一 26a-26b)"處容古舞飜長袖,漁父新詞唱後庭." 등에서도 이러한 작법이 반복되고 있다.

있다. 부여에 들어서면서 지은 작품〈渡白馬江憩扶餘縣〉에서도 "지난 해 포석정 앞을 지났더니 오늘 고란사 아래로 왔도다. 박혁거세 할아버지 천년의 신령함을 이어 왔고, 온조왕의 칠백년 패업이 여기서 열렸지(去年鮑石亭前過, 今日高蘭寺下來. 朴祖一千靈運續, 溫王七百覇道開)."(70)라 하여 유사한 시풍을 보여 주고 있다.

白馬江頭過古墟 백마강 어귀에서 옛터를 지나며

甄萱城北宿邃廬 견훤성 북쪽 띠집에서 잠을 자노라.

山河表裏分區域 산하는 겉과 속이 구역을 나누었고

草樹高低繞里閭 풀과 나무는 높고 낮게 마을을 덮고 있네.

閏歲春風三月後 윤달 든 해라 봄바람이 3월에나 부는데

客程鄕夢五更初 나그네길 고향 꿈을 새벽녘에 꾸노라.

潭州未到先思罷 당주에 이르기도 전에 파직을 먼저 생각하니

興在新川釣舊魚 홍은 옛날 고기잡던 신천에 있도다.

〈閨三月初一日參禮驛作〉(「潭州錄」,卷九 5b)

金溝를 지나 泰仁에서 잠을 자며 지은 작품이다. 首聯에서부터 고유명사를 나열하며 현실감을 돋우고 있다. 尾聯에서는 다시 고유명사를 등장시켜 광나루에 있던 자신의 臺山 별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말하고 있다. 특히 頸聯에는 올해가 윤달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다지 특이할 것도 아니지만 충실히 시어로 수용하여 紀實의 시정신을 충실히 하고 있다.

李安訥은 1611년 다시 금산군수가 되었다. 이 시기의 작품 역시 지나는 곳의 역사와 경물을 지리지를 엮듯이 써내려가고 있다. 위에서 예로 든 것들이 역사를 다룬 것이어서 지명이나 인명의 구사가 불가피했다고도 하겠지만 아래의 예들은 이러한 지명 등 사실을 직서해내는 것 자체가 李安訥의한시 작법임을 알 수 있게 한다.

命新州號說高麗 왕명으로 고을 이름 새로 붙인 것이 고려적 일이요,

參政榮生盡錦時 참정공이 대낮에 비단 입은 영화에서 생긴 것.

郡本濟疆傳進乃 군은 본디 번제의 땅 진내였는데

縣幷羅代廢尸伊 현은 신라 때 시이까지 병합하였다.

栗亭冶隱先賢里 율정과 야은 두 선생의 옛 마을,

直學監門孝子碑 직학과 간문에는 효자비가 서 있네.

<sup>(70)「</sup>潭州錄」, 卷九 4a.

荒峽一區多古蹟 황당한 골짜기 한 구석에 고적이 많은데 兩峯忠血最感悲 제봉과 중봉 두 충신의 피가 가장 슬프구나. 〈十月十日入錦山郡作〉(「錦溪錄」,卷十 4b~5b)

금산군은 원래 고구려때 進禮縣이었는데, 충렬왕 때 이 고을 출신 金侁야 원나라에 벼슬하여 遼陽行省의 參政이 되었기에 후에 그가 돌아오자 왕이이를 치하하여 이 고을을 錦州로 승격하였고 주금의 예로서 표창하였다. 首聯은 이러한 사실을 시로 말한 것이다. 또 頷聯은 다시 백제의 영토였을 때進乃郡으로 불리운 사실과, 백제의 豆尸伊縣(富尸伊이라고도 한다)을 통일신라 때 병합한 사실을 적었다. 頸聯은 尹澤의 정자인 栗亭이 여기에 있고 吉再 역시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사실과, 直提學을 지낸 韓徽과 監軍散省을 지낸 尹龜의 효행비가 서 있다는 사실을 적었다. 또 尾聯에서 霽峯 高敬命과重峯 趙憲이 금산전투에서 전사했음을 말하였다. 이 작품 역시 지리지와 다를 바가 없고, 주가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작품이다. 외직을 전전하며 그 지방의 역사를 충실히 시에 넣는 것 이것이 바로 李安訥의 시정신이다.

#### 4. 결 론

이상에서 李安訥의 전쟁 체험과 이를 형상화한 시를 살펴보았고, 또 이러한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현실주의적 창작방법과 憂國愛民의 정신이 배태된 연원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李安訥은 1592년 壬辰倭亂이 발발하자 피란길에 오르는데, 가족과의 이산과 피란생활의 곤궁상을 매우 사실적인 수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 전쟁이 끝난 후 李安訥은 피란지였던 北關에 관리가 되어, 혹은 사행길에 오가면서 눈에 보이는 전화의 비참상을 직재하게 그리면서 지난날의 비극을 돌아보고 조정의 무능한 대응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 시를 제작하였다. 그 후 李括의 난 등 내부의 변란과 임진왜란 이후 간헐적으로 일어난 胡亂을 직접 목도하고 이를 그대로 시에 담거나 장수로 출정한 이의 무능함을 풍자한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들 작품에는 憂國과 愛民의 주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詩史로 일컬어질 만큼 당대 현실이 직재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李安訥 시의 현실주의적 경향은 그의 가계에서 지속되어 온 杜甫의 시에 대한 학습에서 배태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는 杜詩에서 點化한 것이 많거나와, 그의 시에 관류하고 있는 憂國과 愛民의 정신이, 비슷한 전쟁 체험으로 韓中 漢詩의 가장 큰 전범이 되었던 杜甫의 시를 모범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紀實의 정신이라 하였다.

紀實의 시정신을 시에 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당대인의 성명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李安訥은 자신의 벗을 그리워 한 작품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작품 서두에 놓아 그들에 대한 그리움을 강렬하게 표출하면서도, 자신과 벗이 당면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李安訥은 자신의 시를 제작한 날짜를 서두에 두어 역사가가 사실을 적어나가는 듯한 수법을 택하고 있다. 조선의 지명을 시어로 널리 활용한 것 역시 이러한 紀實의 정신을 형상화하는 작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때 구법은 韓愈의 시를 배워 산문적인 것이 많아, 구체적 사실을 적을 때 나타나기 쉬운 단조로움과 약한 기세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작법이 지나친 기이함과 억색함을 면할 수 없기에 李安訥은 반복적 표현을 즐겨 사용하여 唐詩의 홍취를 가미하였다. 李安訥은 특히 노래로 불리워지는 漢詩의 제작에도 큰 관심을 보였고, 또 자신이 직접 여러 편의 국문시가를 제작한 것이확인되므로 그의 시에서 음악성의 문제가 매우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李安訥은 이와 같은 작법으로 자신이 목도한 현실과 자신이 처한 생활상을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시에 담아낼 수 있었으며, 변방의 풍속과 古都의역사를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紀實의 정신과 함께 중국인과 다른 조선인의 한계를 인식하고 조선적인 것을 제재로 구사하여야 한다는 민족문학적 성격의 한 단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李安訥의 시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현실주의적 창작방법과 紀實의 시정신은 조선 후기 사실적 시풍의 한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시는 조선의 경물과 역사, 풍속을 제재로 하고 있거니와, 자신이 조선에서 직접 체험한 현실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법 자체가 杜詩를 조선의 현실에서 응용한 것이기에, 조선 후기 시인들이 더욱 杜詩에 관심을 가진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들이 직면한 현실과 상황을 현실주의적

방법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게 한다. (필자:서울대학교 강사,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